

‘티볼리’에 밀리는 ‘투싼’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4일 금요일 제3294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3일>

코스피	1915.53	(+0.31)
코스닥	678.25	(+0.23)
금리(국고채 3년)	1.70	(-0.03)
환율(원·달러)	1190.30	(+6.30)

광주신세계 특혜 의혹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반대 추진위원회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반대추진위원회 제공

윤장현 시장, 신세계와 복합쇼핑몰 추진 상권 붕괴우려에 지역상인 등 거센 저항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계열사인 광주신세계(대표 유신열)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와 추진중인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건립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과 지역상인들이 반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특급호텔을 포함한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 이마트 광주점과 주차장 자리에 34만1360㎡ 규모로 지하7층~지상21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6000억여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추진해 2019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신세계는 지난 5월 광주시와 투자협약체결 당시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신규 고용창출 인력만 2200여 명이 발생하고 고정근무 인력만 5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추진반대위원회(위원장 김동규)에 따르면 이 쇼핑몰이 입점하게 되면 광주 서구, 동구, 광산구 등 2380개 업체 가운데 714개 업체가 폐업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지역 패션매장 등 주민 198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연 매출 2811억원, 월 매출 2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광주 지역 상권 관계자(세정아울렛·금호월드 등) 300여 명은 3일 오후 광주시청앞에서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광주시 업무협약 백지화 권고 이행 촉구 결의 대회를 열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도 지난 2일 광주시에 신세계와의 다목적 복합시설 개발 투자협약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추진반대위원회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시 인근 소상공인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1348만원(46.5%) 감소한다. 특히 음식점업을 하는 점포의 월 매출이 기존 1405만6000원에서 293만3000원으로 79.1% 하락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월 매출은 집합상가가 4970만5000원에서 2165만7000원으로(56.4%), 5~10km미만 상권이 4479만2000원에서 2168만6000원(51.6%), 소매업이 3374만9000원에서 1702만3000원(49%) 줄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 하락은 하루 평균 방문객 수 감소가 원인으로 꼽혔다. 복합쇼핑몰이 출점되면 하루 평균 방문객은 40.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추진반대위원회는 한 예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근 이마트 입점 후 상권인 금호월드 방문객 추이를 공개했다. 금호월드의 이마트 입점 전인 2006년 방문 차량은 월 약 7만5000대 수준이었으나 2009년 이마트 입점 후 월 약 5만8000대, 지난해 월 약 4만3000대 수준까지 하락했다.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광주시의 입점 특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특혜 의혹으로 ▲윤 시장의 사업 제안 ▲수익성 보장 위한 용도변경(특급호텔+복합 쇼핑몰) ▲면세점 특허권 획득 지원 등을 꼽았다.

윤 시장은 현재 광주 일대에서 일부 특급호텔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 11일 신세계 측에 투자협약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완료를 통해 기존 도로도 변경, 이마트와 주차장 사이에 놓인 폭 8m 길이 110m의 도로 폭은 유지하면서 직선이던 것을 158~160m로 연장·우회하는 방법으로 신세계그룹의 쇼핑몰 부지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수익 구조는 호텔이 10~15%, 면세점·기타쇼핑몰이 85~90%를 차지한다. 추진위는 이 때문에 지역 상권의 몰락(폐업, 도산)과 소상공인 시장 퇴출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군사 ‘왕별’ 된 중국

일제의 반식민지였던 중국이 70년만에 군사력으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왕별’로 우뚝 섰다.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문 광장에서 열린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세계인의 눈과 귀에 각인시켰다. 이날 열병식의 선두는 중국산 최신 전차인 99A 탱크가 이끌었다.

66년전 같은 자리에서 신중국 성립을 기념해 열린 첫 열병식 최강의 전력은 소련군이 노획해 제공한 일본 제국 육군의 97식 중형 전차였다.

70년이 지난 중국군은 더 이상 인해전술과 재래식 무기에 의지하는 군대가 아니다. 이날 선보인 최강의 전력은 중국산 핵미사일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습을 드러낸 둥펑-31A만으로도 충분히 가공할 전력이다.

중국군은 이날 ‘항모킬러’로 불리는 둥펑-21D까지 최초로 공개해 남중국해의 미 해군을 위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략무기에 자신감을 얻은 듯 30만 병력 감축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송병형 기자 bhsong@

Hyundai Motor's Tucson, Four months of continuous falls in sales have been observed

현대차 투싼, 4개월 연속 판매량 '뚝'



The performance of Hyundai's SUV Tucson in domestic market seems rather disappointing.

The sales target that the company set when releasing Tucson was 3750 vehicles per month. However, in August, only 2920 of the vehicles were sold which shows a dramatic decline in sales over the past 4 months.

Compared to last month, the sales decreased by 30.6% and also by 13.3% compared with last year. It is said that the effect of launching a new car lasts for 6 months. Nevertheless, Tucson does not seem to have enjoyed the launching a new car effect to boost the sales but rather the sales volumes have decreased dramatically.

Meanwhile, Ssangyong Motor's Tivoli is dominating SUV market by creating a great sensation. Tivoli has beaten Tucson by selling 3488 vehicles in August.

Tivoli, since it was first out in the market, has shown a consistent sales figure. From January to August, average 3252 of Tivoli were sold every month and twenty six thousand twenty three were sold for the past 8 months.

Hyundai Motor's total domestic sales has only increased by 6.1% selling fifty one thousand ninety eight vehicles, whereas Ssangyong Motor's domestic sales has increased by 45.7% in comparison with the last year.

현대자동차 SUV 투싼(사진)이 국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출시 당시 내세웠던 월 평균 판매목표 3750대는 8월 2920대를 기록하며 4개월 째 급감했다.

지난 8월 투싼의 전월비,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은 각각 30.6%, 13.3%씩 뒷걸음질 쳤다.

업계에서는 신차출시의 효과를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투싼은 신차효과로 판매량을 늘려가기는커녕 판매량이 급감했고 그 감소폭 또한 컸다.

쌍용자동차 티볼리는 광풍을 불러 일으키며 SUV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티볼리는 지난 8월 국내에서 3488대가 팔리며 투싼을 앞질렀다.

티볼리는 1월 출시 이후 8월까지 월 평균 3252대씩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총 2만6023대를 기록했다.

8월 쌍용차는 전체 국내 판매(7517대)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45.7% 증가한 반면 현대차는 5만1098대를 판매해 6.1% 증가에 그쳤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

▲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61년전(54년 건국5주년 열병식) 북한 김일성 주석의 자리에 서서 중국군의 위력 과시를 지켜봤다.

▲ 중국군은 베이징 도심과 톈안문 광장에서 진행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 열병식에서 **최첨단 무기**를 최초 공개해 강력해진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중, 한·미·일간 외교적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한창인 가운데 거물인 재벌 총수는 누구 한명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반면 최고경영인(CEO)들은 줄줄이 국감장에 서게 됐다.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롯데월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거부했다.

사회

▲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와 박근혜(62)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15)군이 과도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임신진단테스트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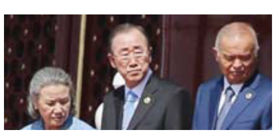
▲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 31명에게 서신을 보내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5년째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 공개는 사법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에 무심한 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등급' 강원대, 학생총회 개최 3일 오전 강원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강원대학교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강원대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대학본부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 
일본 정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데 대해 "극도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중국이 사상 최대의 열병식을 치른 가운데 미국은 하와이 **진주만의 퇴역 전함** 미주리호에서 참전 용사들과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다.

▲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꼬마**의 시신이 테러와 전쟁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난민들의 참혹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가격이 약 8조원에 육박해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전망이다.

▲ 현재 진행되는 **엘니뇨 현상**이 기상 관측이래 가장 강력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세계 농산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경제

▲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8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따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0.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3대 금융그룹 회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기 위해 연봉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약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는 셔츠를 입고 심박을 측정하고 냉장고에 부착해 식품의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대거 선보인다.

▲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 유도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 받는 도중 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포스코**가 3일 광양제철소에 연산 50만톤 규모의 7CGL(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을 착공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글로벌 2위 자동차강판 생산 철강사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단통법 위반으로 일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신 요금할인제를 선택해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한 LG유플러스도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우선 협상자로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당초 본입찰에서는 MBK파트너스, KRR,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골드만삭스, 칼라일 등 5개 사모펀드(PEF)가 경쟁했으며 MBK파트너스가 최종 승자가 됐다.

▲ **CJ그룹**이 문화사업 부문에서 2020년 글로벌 탑10 기업으로 도약, 한류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문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성루에 서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1959년 10월 1일 김일성 전 북한 주석(맨왼쪽)이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맨오른쪽)과 함께 텐안문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지켜본 장면. /연합뉴스

朴 대통령, 61년전 김일성 자리 꿰찼다

中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

박근혜 대통령은 3일 61년전(54년 건국5주년 열병식) 북한 김일성 주석의 자리에 서서 중국군의 위력 과시를 지켜봤다. 6·25에 참전해 한반도 통일을 막았던 바로 그 군대의 후예들이다.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끌었던 노태우 정권의 주역들은 이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문 광장에서 열린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군사대국 중국의 실력을 실감하게 했다. 중국은 병력 1만2000여명과 500여대의 무기장비, 200여대의 군용기를 동원했다. 이 무기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상당수가 이번에 첫 선을 보인 것이다.



둥펑-31A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AP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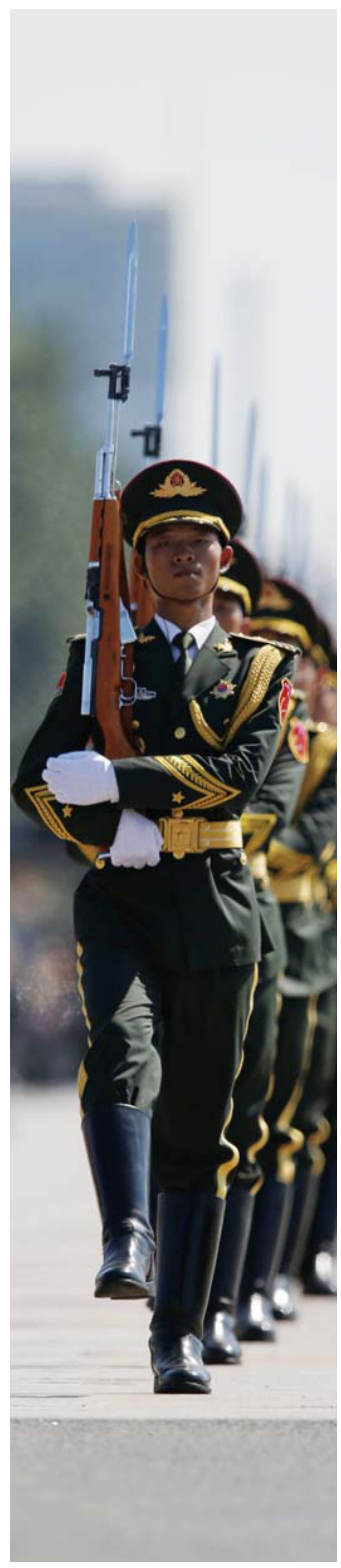
이번 열병식은 최초로 '항일 승전'를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지난 14차례의 열병식은 모두 건국절(10월 1일)에 열렸다. 승전일 열병식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포위망을 겨냥한 것이다. 최초로 공개된 '항모 킬러' 둥펑-21D 미사일이 그 증거다. 이 미사일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포위에 나선 미 해군에게 위협적이다.

과거 6·25때 중국군의 위협에서 미군의 도움을 받은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은 여전히 미군에게 안보를 의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경제·군사 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경제는 감기에 걸린다'는 속설은 중국 '증시 폭락' 사태 와중에 입증됐다. 중국의 군사대국 굴기로 미·일 두 '왕별'간 군비 경쟁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가 중심이었던 양국 관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박 대통령은 70분 동안 열병식을 바라보면서 한국 외교의 미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무개차를 타고 사열하고 있다. /AP 뉴시스

국감 증인, 거물은 빠지고 CEO만 줄줄이

정몽구·이재용·조양호 불발
신동빈은 정무위만으로 가닥
김범수·이해진·이석우 등 채택



금속노조 비정규대표자회의 주최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시청 동편 광장 국가인권위원회 고공 농성장 앞에서 기아자동차 화성 비정규직 분회 관계자를 비롯한 대표자회의 관계자들이 조속한 정규직 전환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를 두고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국감 증인 채택이 한창인 가운데 거물인 재벌 총수는 누구 한명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최고경영인(CEO)들은 줄줄이 국감장에 서게 됐다.

3일 각 상임위가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한 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은 모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정 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검토했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견해를 듣기 위해서였다. 조 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땅콩회항' 사건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검토했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합병 건이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다.

롯데사태로 인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아직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정무위원회 한 곳에서만 증인으로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실제 전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신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날 산자위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도 증인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5단체장도 모두 증인에서 제외했다.

CEO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잇따르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합병, SK㈜·SK C&C 합병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가 증인 채택 사유다.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을 각각 '론스타 사태'와 경남기업 여신지원 논란과 관련해 증언으로 채택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석우 공동대표도 국토위에 불려나간다.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행위는 또 부산시 건축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여전한 미군 범죄자의 천국

범죄 절반 '공소권 없음'
100명 중 7명만 재판회부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자의 절반은 우리 사법당국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식재판에 회부된 주한미군 범죄자는 단 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1766명이다. 이 중 50.6%인 893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증가 추세에 있는 주한미군 성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역시 일부는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성범죄는 2011년 4건이었으나 2012년 11건, 2013년 14건, 지난해 22건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8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8.9%였던 비율이 올해 6월 기준 53.4%로 높아지고 있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 SOFA협정엔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와 미군의 공무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돼 있지만, 부속합의록 제22조 3항은 '공무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돼 있다.

기소된 절반의 주한미군 범죄자가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었다. 법무부가 심재원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 중 109건(7%) 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공개는 부적법하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병형 기자

이종걸 "제2롯데월드 청문회 열자"

국방안보 흔든 특혜 지적
김무성, 청문회 제안 거부



이종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롯데월드 청문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그룹 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2.7%밖에 안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하여 재벌을 형성했다. 중국에 투자하여 1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주주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아도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어제 김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에 감동했다"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동의하냐는 기자들이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재벌개혁 언급에 대해 "원론적인 것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형 기자

"네이버·다음, 정부·여당에 부정적"

포털 벼르는 새누리
국감서 이슈화 추진

'오피셜 댓글' 논란 이후 표면으로 떠 오른 정권의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에서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난다며 이를 국감에서 문제삼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최형우 서강대학교 교수 외 3명이 작성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네이버 기사 3만482개와 다음 기사 1만9754개 등 총 5만236개의 기사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사에서 다루는 이슈 자체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보다 부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가 더 많았으며 네이버와 다음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부정적 콘텐츠를 긍정적 콘텐츠보다 더 많이 노출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또 여야 대표에 대해선 네이버와 다음 모두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비해 높은 빈도로 노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자율 규제 정상화 방향의 법 규제 마련, 객관적 자료의 지속적 공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장우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이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송병형 기자

‘포스코 수사’ 새 국면… 협력사 비리 포착

檢, 정준양 재소환… 티엠테크 비자금 조성 정황 확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소환을 끝으로 6개월여의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에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포스코 주요 협력사의 불법적인 특혜성 거래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면서 사건의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재임하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그룹에서 벌어진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을 놓고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해명해야 할 의혹은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영향력 행사 ▲동양종합건설 특혜 ▲코스틸 유착 의혹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3월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시세의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여 막대한 손해를 봤다. 반면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이자 정 전 회장과 친분이 각별한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큰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 정 전 회장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지오텍과 합병한 포스코플랜텍은 자금난을 겪다 현재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가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측 임원으로부터 “정 전 회장이 동양종합건설에 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몰아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철강 중간재 거래 업체인 코스틸과 유착 의혹도 있다. 코스틸은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긴 곳으로, 수사 초기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을 이날 소환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고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수순이었다.

그러던 검찰이 지난 1일 포스코 제철소 설비를 시공·정비하는 협력사 티엠테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또 다른 특혜와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의 실소유주로 거론된 박모씨는 이상득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측근이다. 포스코 수사가 동력을 찾을 거란 근거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포스코 수사는 초기부터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실세들을 정조준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현재로선 티엠테크의 비자금 단서가 포스코 수사의 종료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 단서를 확보할 경우 정 전 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함께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순 횡령 등으로 귀결될 경우 추석 전 수사가 최종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가을상공을 나르는 패러글라이딩 강원 인제에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패러글라이딩대회 참가 선수들이 기룡산 활공장을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뉴시스

檢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구속기소

머그컵 수백세트·아들 축의금 1억원도 받아

분양대행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이 현금과 고급시계에 이어 민원인 선물용 머그컵 수백 세트와 아들의 결혼 축의금 1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2억7000만원과 시가 3000여만원대의 명품시계 2점, 867만원짜리 안마의자 1개 등 3억5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5월 박 의원에게 민원인 선물용품 명목으로 ‘나팔’ 머그컵 504세트를 건넸다. 시가 252만원 상당이다. 이듬해 10월과 2013년 12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강화유리접시 1200세트(396만원)와 500세트(220만원)를 보내줬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1억원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김씨의 인터넷 선거운동원 활동을 계기로 알게 됐다. 김씨도 박 의원의 지역개발 공약을 분양대행업에 활용하면서 친분이 쌓였다.

민원인 선물용품으로 시작된 박 의원의 금품수수는 점차 대담해졌다. 2013년 8월에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 작년 8월과 11월에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각각 현금 5000만원과 1억원을 받았다. 그때마다 김씨는 ‘명절 인사’나 ‘의정보고서 발간비용’ 등의 명목을 붙였다.

지난해 5월에는 안마 의자와 3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 시계, 3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시계를 건넸다. 박 의원의 두 아들과 부인도 롤렉스·IWC·브랑팡·위블로 골드·태그호이어 등 고급 시계 9점과 5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 2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의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6월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하면서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날 I사 대표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회삿돈 4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연미란 기자

세월호 추모집회 ‘대필진술서’ 논란

경찰, 남의 도장 찍은 진술서 제출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도장이 찍힌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대필 진술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권모씨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서울 종로경찰서 이모 경비과장 명의 진술서에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힌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권씨 구속 이후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 과장의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서는 자필로 쓴 것이거나 자신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장의 진술서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대필 진술서를 증거로 낸 사실이 밝혀졌다’며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과장은 “직원이 진술서를 작성해와 읽어보고 나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내 전임자의 도장을 찍어서 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대필·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권씨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당시 법정에서 이 과장이 ‘메일을 보내왔기에 온 것은 확인했으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이씨의 진술서는 시위대가 모인 시간과 장소, 질서유지 선을 설치한 곳, 해산명령을 내린 시간 등을 언급한 것으로 경찰이 이미 제출한 수사보고서, 채증 동영상 등과 중복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다른 보고서와 동영상을 제출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진술서가 필요 없는데도 굳이 급히 증거로 낸 것은 단순히 증거의 양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의 관행을 비판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KT&G 납품업체 5곳 압수수색

검찰이 KT&G의 납품업체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3일 KT&G의 지정 협력업체 S사 등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 있는 M사와 S사, 충남 I사, 경기도 파주 H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KT&G 관련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대부분 담뱃갑 제조회사인 KT&G 협력업체 S사와 거래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KT&G 전 부사장 이모(60·구속)씨의 추가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이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5년 구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55·사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공격했고 목에 길이 11㎝, 깊이 3㎝의 상처를 낸 것은 칼로 베는 형태가 아니라 내리찍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과도를 도구로 선택해 생명이 직결된 부위를 반복해 공격한 것을 보면 살인 고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때 주한 미국대사의 신변을 위협해 가해함으로써 동맹국의 외교사절에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켜 동맹관계가 약화할 위험을 초래했다. 이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실질적 위험성이 크고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며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법원 '공개 판례' 소수만 확인

국민 법원 방문 열람 불편
상고법원보다 내실화 우선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5년째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 공개는 사법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에 무심한 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판결 건수 776만7673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판례는 0.29%인 2만2676건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부 공개돼 있지 않은 데다 당사자 외 제 3자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2010년 0.32%에서 2011년 0.45%로 향상되는 듯 보이다 2012년 0.16%까지 하락했다. 2013년은 0.37%, 2014년은 0.17%로 공개 비율은 들쭉날쭉했다.

전국 법원 중 대법원이 공개 비율 9.22%로 가장 높았고 특허법원은 2.54%, 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 고등법원은 모두 1%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한 재경 지방법원은 모두 0%대였다. 인천·대구·광주 법원 등 5곳은 0.03%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라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해군 장병과 시각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 해군 1함대 108전대 장병 15명이 3일 오후 강원 양양군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시각장애인 탠덤 사이클 대회'에 참가,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탠덤 사이클 대회는 2인승 자전거에 비장애인(파일럿)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탑승해 달리는 경기다. /연합뉴스

"대법원 연고관계 사건 수임 자제"

변협, 전관 변호사에 당부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31명에게 서신을 보내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변협이 3일 공개한 서신에서 "대법관과 과거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일 경우 자기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자신도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이 자체로 대법원판결은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런 연고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전관예우의 악습을 척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귀 변호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었는데 기소율은 '뚝'

건수 5년 간 3.5배↑
"엄중한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검찰 기소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50건에서 2011년 408건,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36건까지 올라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7월 현재 618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범의 기소율은 높지 않았다.

전체 사건 처분 건수 대비 기소 건수로 나타내는 기소율은 2010년 42.5%에서 2011년 39.2%로 떨어졌다가 '도가니법' 시행 후 2012년 42.9%, 2013년 45.3%로 잠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다시 37.1%로 뚝 떨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조속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부정부패 공무원 실형률 20.4% 불과

솜방망이 처벌 지적

법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남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범죄 실형·집행유예 현황(1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실형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판결은 공무원범죄가 41.5%로 가장 높았고, 횡령과 배임의 죄(34.20%), 절도와 강도의 죄(31.90%), 성범죄(28.0%), 살인(21.5) 순이었다. 횡령과 배임의 주체가 주로 기업인들이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는 20.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횡령과 배임의 죄와 성범죄가 각각 27.0%, 27.40%, 절도와 강도죄는 34.0%로 뒤를 이었다. 실형비율이 가장 높은 죄는 살인으로 70.6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2억 뒷돈' 포스코 前 상무, 징역 2년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고 대여금고에 보관해 은밀히 관리하면서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의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이던 박씨는 2012년 9월초 구미 하이테크밸리(HTV)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W사에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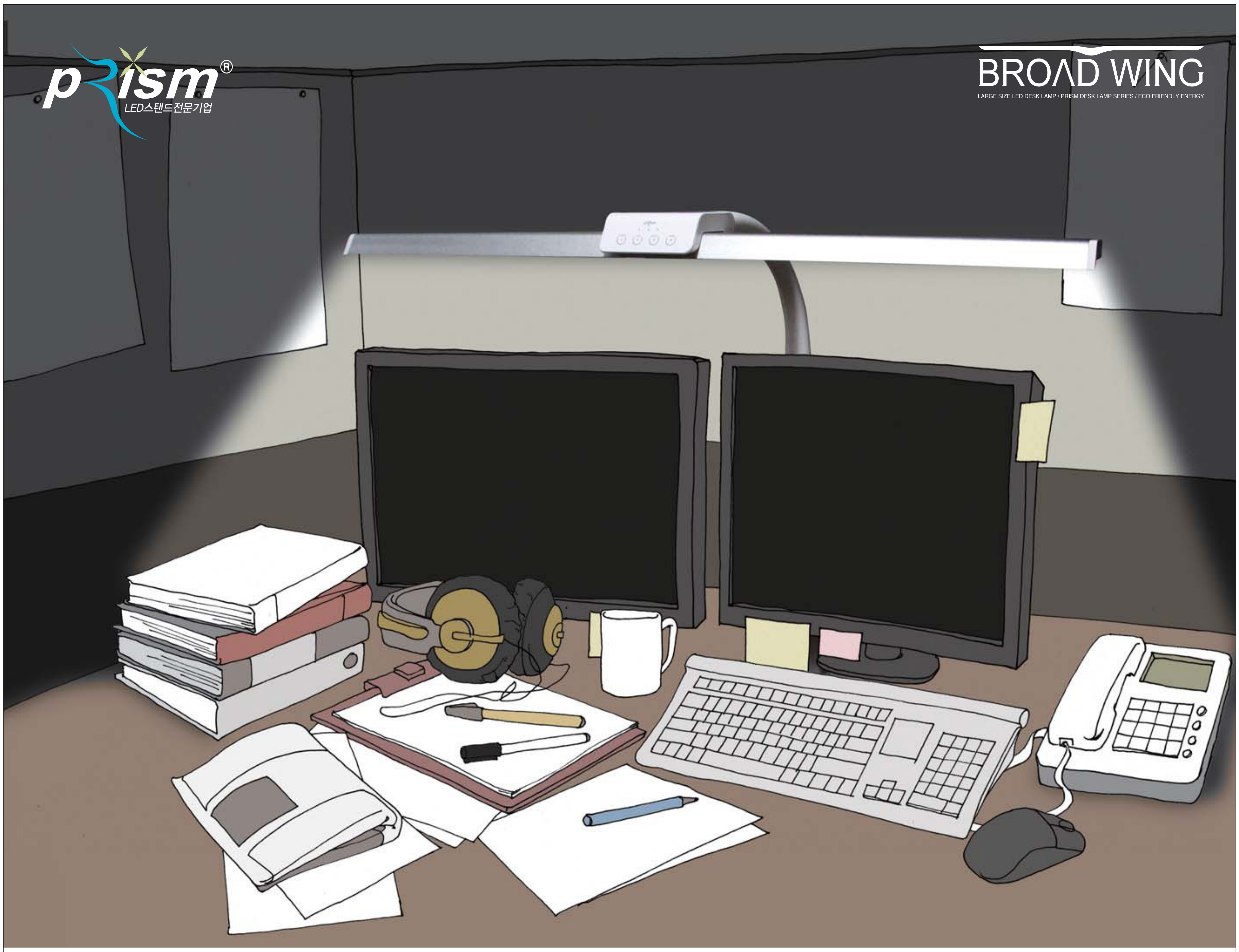
W사는 당시 포스코건설과 38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했다. 박씨는 현장소장을 시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뒤 상무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이 기자

prism®
LED스탠드전문기업

BROAD WING
LARGE SIZE LED DESK LAMP / PRISM DESK LAMP SERIES / ECO FRIENDLY ENERGY



듀얼도 자신있다

언제, 어디서든

800mm 초대형 책상용 스탠드
자유로운 각도 조절



EMC Registered

No.1

국내 1위, LED조명의 세계적 名家 프리즘에서 만든
800mm 초대형 프로페셔널 스탠드 「브로드윙」

Venture for Tomorrow 내일을 향한 희망에너지 |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세계속의 경기도

LSP–9000 DC24V/0.8A/20W

학습 목적에 따라 3가지 빛컬러 변화가능 & 컬러별 3단계 조도조절!!

Cool(수리) 색온도 : 6500K ~ 6900K

논리적 사고 및 수리적 계산영역
파란빛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져
뇌와 사고속도를 높여주어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Bright(언어) 색온도 : 4500K ~ 490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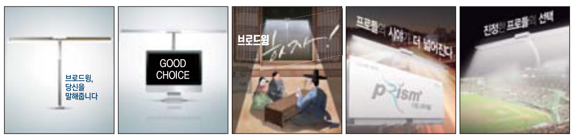
언어 및 암기의 영역
주황빛은 언어 및 암기영역으로
어학 학습과 같은 상황에 도움을 줍니다

Warm(창의력) 색온도 : 2600K ~ 2900K

창의, 예술 및 휴식의 영역
붉은빛은 창의, 예술 및 휴식 영역으로 정신적 피로를
덜 느끼며 상상력이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드윙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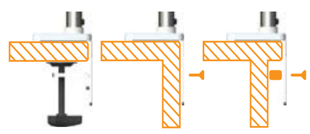
※학생, 연구원, 설계실, CEO 책장 등 다양한 분야 다목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 전문가들의 선택 · 학습・업무용 · 넓은 시야 확보 · 스케일의 차별화

어떠한 책상에도 설치가능

다양한 설치 방식



클램프 방식 · 볼트 설치 방식 1 · 볼트 설치 방식 2

| 신제품 출시 특별판매가 | 브로드윙 : ₩66,000X3 (카드 무이자 3개월) | 24시 무료 주문전화 | 080·570·2222 www.arambi.kr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4–서울중구–0505호 ■상호명 : (주)아람비 ■대표자 : 최은희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10화 경찰관의 총기 사살>

대법원 2004.3.25.선고 2003도3842(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강화… 신한금투 긴장?

횟수·회전율·손실한도 등
제약 기준 타회사比 '느슨'
최근 부당 주식매매 '징계'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약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삼성·대우·한국투자·대신·유안타·하나대투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국내 주요 8개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기준 분석 결과 신한금투는 임직원의 매매횟수와 회전율, 손실 한도에 아무런 제약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월 주식매매횟수의 경우 NH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각각 월 300회, 한국투자증권은 월 80회로 상한선을 뒀다.

투자금액은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일정액만 가능하도록 했다.

손실한도는 HN투자증권(월 5000만원)과 KDB대우증권(월 3000만원)으로 각각 상한선을 마련해 뒀다.

월 회전율 규제는 신한금투를 제외한 7개 증권사가 월 600~1500% 수준으로 제한했다.

직원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하는 증권사 6곳이 드러났다. 그동안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본인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전액을 성과급에서 제외하고 있고, 유안타증권은 매매대금의 1000% 이하의 거래액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한금투 임직원이 매매제한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신한금투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3개월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

현행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기매매를 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견책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신한금투에는 전산장비 등 입출고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는 일 3회, 월 회전율은 500% 수준으로 제한된다. 자기매매는 소속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리서치, 기업금융(IB)부서 등 주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대상 계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통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직'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로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향후 3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참여연대, '고객개좌 사찰' 신한은행 고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에 대한 3차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조회·사찰에 대해 엄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대 금융그룹 회장 연봉 30% 자진 반납

<KB·신한·하나>

계열사 경영진도 참여
신규 채용에 활용키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3대 금융그룹 회장이 연봉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한꺼번에 연봉을 자진 반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KB금융지주 등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달부터 연봉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기한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금융사의 경영환경이 좋아지기 전까지 연봉 삭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의 전무급 이상 임원들도 연봉의 일정 수준을 반납할 예정이다. 대표이사는 20%, 전무급은 10%가량 반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경우 KB금융은 연간 약 20억원 안팎의 재원이 모이고 신한금융은 약 25억원, 하나금융은 약 27억원 상당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와 계열사 경영진이 반납한 연봉은 계열사의 인턴과 신입사원, 경력사원 등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들 금융지주는 임원들이 반납한 연봉에다 그룹별로 재원을 더 마련해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경영진의 연봉 자진 반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

두산, 면세점 출사표… 주가도 '들썩'

두산타워 활용… 특허 신청
관광 인프라 평가항목 유리

두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시내 면세점 사업에 도전장을 냈단 소식에 주가가 들썩였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경영권 분쟁 등으로 도마에 오른 롯데의 탈락 가능성을 점치는 한편 두산의 사업 진출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0.99%(1000원) 내린 1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산 주가는 전날 면세점 사업 진출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 5%대 강세를 보이며 한때 10만7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만 정오 들어 약세로 돌아서 약보합 마감했다.

두산은 지난 2일 동대문 두산타워를 면세점 입지로 선정하고 오는 25일까지 관세청에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산그룹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두산은 기존 두타 쇼핑몰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층을 면세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두산 측은 두타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동대문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기존 면세 사업의 운영 특허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공개 입찰 대상은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소공점,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 등 서울시내 3곳과 신세계 부산 조선호텔면세점 등 총 4곳으로, 오는 11~12월 중 특허가 만료된다.

두산은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SK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잠재 후보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됐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이 선정된다면 자체사업 실적에서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두산타워는 명동에 이어 외국인 방문·선호도 2위이자 의류 쇼핑 중심인 동대문 지역의 랜드마크로 '관광 인프라와 주변 환경요소'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세점 입찰 경쟁은 지난 7월 신규 특허 선정과 달리 기존 특허를 갱신하는 성격의 입찰이어서 기존 사업자를 대체할 만한 경쟁력 확보 여부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면세점 특허는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 주기 경쟁 입찰제로 변경됐다. 하지만 그동안 기존 사업자가 바뀐 적은 없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경우에도 롯데가 지난 1979년 사업권을 받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이 만료가 다가온 2곳의 면세점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유통업계에선 롯데그룹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와 경영권 다툼에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어서 재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먼저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두산을 포함, 면세점 사업에 참여하게 될 대기업 간 경쟁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보배 기자

산업단지 품은 아파트, 콧대 높아진다

배후수요 '탄탄' 환금성 탁월
상반기 청약서 1순위 내 마감
투자자·실수요자 쌍끌이 인기



롯데캐슬이 파주시 운정신도시 A27 블록에 공급하는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조감도. 이 곳에서 승용차로 25분 거리에 LG디스플레이와 파주 산업단지가 있다. /롯데건설 제공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안산시 상록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5.73%로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높다.

이는 약 3800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안산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가 배후수요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에 안산 상록구에서 지난달에 공급된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전체 평균 경쟁률 2.38대1)와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전체 평균 경쟁률 4.87대1)가 모두 청약 순위 내에서 마감됐다.

앞서 평택·송탄·칠괴 일반산업단지 등이 조성된 평택에서도 7~8월에 분양한 '자이더익스프레스1차' 1·2단지와 '힐스테이트평택1차'도 약 3~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하반기에 분양하는 산업단지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롯데캐슬은 이달에 파주시 운정신도시 A27블록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를 공급한다. 승용차로 25분 거리에 LG디스플레이와 파주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GS건설도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거제오션파크자이'를 분양한다. 사곡산업단지와 삼성중공업 등 주요 산업단지가 승영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다음달에는 효성과 우미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산업단지 인근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한다.

효성은 다음달에 하남시 망월동의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rst'를 분양한다. 강동첨단산업단지와 가깝고 인근에 유니온스퀘어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미건설은 평택시 소사벌지구 B10블록 '평택소사벌지구 우미 린 2차'를 분양한다.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고덕국제신도시와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위2산업단지와 가깝다.

대우건설은 군산시 조촌동 디오션시티에 '디오션시티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인근에 조성돼 있고 장항산업단지도 가깝다.

대림산업은 용인시 남사면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분양한다. 인근에 약 102만㎡ 규모의 용인테크노벨리가 2018년 준공될 예정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낀 아파트 단지는 실수요자와 임대 수요자가 많아 환금성이 뛰어나다"며 "산업단지가 시세뿐만 아니라 청약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배가 됐다"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metroseoul.co.kr

전국 아파트 값 평균 0.11% 올랐다

한국감정원 주간동향 발표
지난주와 동일 상승폭 유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0.11%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8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랐지만 상승폭은 지난주(0.11%)와 같았다.

가계부채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 우려로 상승폭 확대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17%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주(0.19%)보다 축소됐다.

강북권(0.17%)은 중소형 아파트의 실수요는 꾸준했지만 상승폭은 둔화됐고 강남권(0.18%)은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기대심리가 확산되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 별로는 동대문구(0.48%)각 가장 높았고 서초구(0.27%), 구로구(0.26%), 강남구(0.25%), 관악구(0.23%), 노원구(0.20%), 마포구(0.1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0.14% 상승해 지난주와 오름폭이 동일했고 지방은 0.07%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제주(0.25%)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대구(0.23%), 서울(0.17%), 울산(0.14%), 경기(0.12%), 인천(0.11%), 경북(0.10%), 전북과 강원(0.07%), 부산과 광주(0.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0.04%)과 세종(-0.01%)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올라 지난주와 상승폭이 같았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4% 올랐다.

서울에서는 노원구(0.57%), 동대문구(0.44%), 양천구와 영등포구(0.31%), 동작구와 금천구(0.27%), 서초구(0.23%) 등이 상승했다.

수도권은 0.21% 상승해 지난주와 오름폭이 동일했고 지방은 0.09% 상승해 오름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대구(0.25%), 서울(0.24%), 경기(0.20%), 충남(0.18%), 인천(0.17%), 제주(0.13%), 전북(0.11%), 울산과 경북(0.09%) 등 모든 시도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구자익 기자

포스코건설 '올해의 亞 발전 프로젝트' 수상

포스코건설이 파워플랜트 아시아 어워드(Power Plant Asian Awards 2015)에서 '올해의 가스발전 프로젝트'와 '올해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준공 발전 프로젝트' 상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안산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가 고효율의 친환경 발전설비로 인정을 받아 '올해의 가스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또 포스코에너지 인천 LNG 복합화력발전 7,8,9호기 프로젝트'는 3개 호기를 동시에 설계·시공하며서 착공 후 22개월만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 '패스트트랙' 상도 수상했다.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중남미에서 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며 "이런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등 해외 신시장 개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박용걸 포스코에너지 상무(왼쪽 두 번째)와 박남진 포스코건설 소장(왼쪽 세 번째)가 지난 2일 '올해의 Fast Track 준공 발전 프로젝트' 상과 '올해 가스발전 프로젝트' 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쌍용건설, 평촌 목련3단지 리모델링

2017년 상반기 착공

쌍용건설이 안양시 호계동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

쌍용건설은 3일 평촌 목련3단지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92년 준공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14층~20층 아파트가 지하 2층 지상 16층~23층으로 바뀐다. 지하 층을 포함해 총 4개 층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을 수직으로 증축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단지는 10개동 902가구에서 137가구로 135가구가 늘어난다. 늘어난 가구는 일반 분양된다.

가구별 전용 면적은 41.62㎡가 51.37㎡으로 늘어나고 50.73㎡는 62.53㎡으로, 56.70㎡는 70.01㎡로 커진다.

총 사업비는 1600억원이고 내년에 사업승인을 받은 뒤 오는 2017년 상반기 일반 분양·착공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약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이번 수주로 조합설립을 마친 오금 아남과 둔촌 현대, 수원 동신, 평촌 목련 아파트 등 약 4000가구의 수주 잔고를 갖게 됐다.

쌍용건설은 앞으로도 서울과 수도권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국내 단지 전체 리모델링 1, 2, 3호인 방배동과 당산동, 도곡동의 예가를 준공했으며 지난 2012년에는 국내 최초의 2개층 수직증축 단지인 밤섬 예가를 리모델링했다. /구자익 기자

'이재용 체제' 삼성전자, 실적 하락세 지속

국내외 법인에서도 실적 부진 심화
샤오미·화웨이·애플은 모두 성장세



이재용(사진) 부회장 체제의 삼성전자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실적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시장의 비수기 영향을 실적 감소 원인으로 꼽았지만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 미국의 애플의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대조적 모습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 올 상반기 매출은 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7.85% 감소한 12조877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박진영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는 7월 30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한데다 구형 중저가 모델 판매가 감소하면서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화웨이의 매출은 280억 달러(약 32조9532억원)로 전년 동기의 1358억 위안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화웨이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 13%의 2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이후 5년래 최고 수준이다. 특히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8%로 지난해 전체 이익률 11.9%를 이미 넘어섰다.

창립한 지 5년 된 신생기업인 샤오미는 기업가치가 500억 달러(59조495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00조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성장했다. 특히 샤오미는 글로벌 기업과 차별화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강화했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애플도 중국발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애플은 중국 시장 성장으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 애플의 3분기(4~6월) 중국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2% 급증했다. 판매 비중도 늘어나 미국 다음으로 큰 애플 주력 시장이 됐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경쟁 업체들의 실적 성장과 달리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물론 TV와 백색가전도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가 야심작으로 선보인 삼성페이는 갤럭시S6부터 사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국내외 법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총괄 법인들의 실적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미주 법인인 SEA의 2분기 매출은 9조원대로 하락해 10조원대 벽이 깨졌다. 중국 판매법인인 SCIC의 매출은 2조7517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매 분기 1조원에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적자다.

때문에 업계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 호조에도 올 3분기 실적이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원 연구원도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 분기보다 9.8% 증가한 8000만대를 기록하겠지만 갤럭시J를 비롯한 중저가폰 위주로 판매가 증가해 평균판매단가(ASP)는 전분기보다 13.9% 하락할 것"이라며 "3분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49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7.2% 감소한 6조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매출액 50조1000억원, 영업이익 6조6000억 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셔츠로 심박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보일러제어

IFA 2015

삼성·LG 등 국내업체
다양한 기술 선보여



슬립센스(왼쪽)와 스마트씽큐 센서.
/삼성전자·LG전자 제공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는 셔츠를 입고 심박을 측정하고 냉장고에 부착해 식품의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대거 선보인다. 전통적으로 참가했던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물론이고 SK텔레콤, 삼성물산 등 다양한 국내업체들이 참여해 기술을 자랑한다.

삼성전자는 IoT 기기 삼성 스마트싱스 허브와 슬립센스를 선보였다. 삼성 스마트 싱스 허브는 카메라와 연결해 영상으로 집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추가했다. 웍스 위드 스마트싱스라는 기기 인증 프로그램으로 파트너십을 늘려가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맺어 자동차 대시보드에 집 안팎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스마트 기기로 차문을 잠글 수도 있게 된다.

슬립센스는 수면을 높일 수 있는 IoT 기기로 사용자의 수면 도중 맥박과 호흡, 움직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웨어러블 플랫폼 브랜드 '더휴먼핏'을 공개하고 스마트슈트, 온백 등 신제품 4개를 전시했다. 온백은 배터리 모듈이 내장된 스마트폰 충전 가방이다.

LG전자는 일반 가전을 스마트 가전으로 바꿔주는 스마트씽큐 센서(SmartThinQ™ Sensor)와 IoT 오픈 플랫폼인 올조인(AllJoyn)을 적용한 스마트 가전들을 공개했다.

스마트씽큐 센서는 지름이 약 4㎝인 원형 모양의 탈부착형 장치다. 이 센서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반 가전 제품에 부착되면 스마트폰으로 작동 상태를 알려주고 원격 제어도 지원한다.

올조인은 전세계 18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IoT 오픈 플랫폼이로 이를 탑재한 제품은 제조사, 브랜드,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서로 연동된다.

국내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은 스마트홈 플랫폼·스마트쇼퍼·스마트셀프 등 쇼핑서비스, UO서비스빔·UO링키지·UO펫핏 등을 선보인다. 전시장에서는 보일러와 에어컨 등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 제품들이 외출·귀가 등 상황에 맞게 제어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임은정 기자 eunj71@

SKC 최신원, 브라질 정부서 훈장 받아

교류 활성화 기여 공로
'히우 브랑꾸' 훈장 수훈



2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최신원 SKC 회장(오른쪽)이 브라질 국가 훈장 히우 브랑꾸를 받은 후 에드문도 후지따 전 주한 브라질 대사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최신원 SKC 회장이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문화·교육 등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브라질 정부로부터 '히우 브랑꾸' 훈장을 받았다.

3일 SKC에 따르면 히우 브랑꾸 훈장은 브라질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히우 브랑꾸 남작을 기념해 1963년에 제정됐다.

정치, 외교, 경제 부문에서 브라질과의 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최 회장의 수훈식은 전날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에지문도 후지따 주한 브라질 대사의 이임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브라질 정부의 히우 부랑꾸 훈장을 받은 국내 인사는 최 회장에 앞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3명이다.

최 회장은 자원부국이자 세계 6대 경제대국인 브라질과의 교류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2011년 6월 사단법인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설립을 주도하고 회장에 추대됐다.

또 그해 12월 브라질 명예영사에 위촉됐다. /이정필 기자 roman@

SK 최태원, 중화권서 에너지·ICT 협력강화 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홍콩, 대만 등 범(汎) 중화권에서 에너지·화학, ICT 등 그룹의 주력 사업분야를 점검했다.

3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에서 SK하이닉스 우시공장, SK종합화학 우한 NCC 공장 등을 둘러본 뒤 지난달 31일부터 홍콩, 대만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만나 사업협력을 논의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사업을 공고히 하고 에너지·화학, ICT 분야에서 글로벌 확장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태원 회장의 이번 출장 목적이라고 SK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3일 대만 최대 기업 포모사그룹의 왕원위안 회장 등을 만나 에너지·화학, ICT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훈 기자 fun@

효성, 국내최대 섬유전시회에 고객사 동반참가

효성이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최대 섬유소재 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 2015'에 참가한다.

효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대남, 신일텍스, 동화텍스타일 등의 고객사와 공동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고객사의 영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상생을 위한 발판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해외에서 매년 열리는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파리모드시티', 'JEC 유럽', 'China Composites Expo(상하이)' 등 국제전시회에서도 고객사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효성은 전했다.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은 "효성이 오늘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트렌드를 제시하는 섬유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객사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판로개척이 쉽지 않은 중소, 중견 기업의 영업 활동을 돕기 위해 효성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현대차 투싼, 티볼리 광풍에 '맥 못추네'

8월 2920대, 목표치 부족
4개월 연속 판매량 급감

티볼리는 SUV시장 평정
월 3252대씩 꾸준히 팔려


현대차 투싼

현대자동차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투싼이 국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출시 당시 내세웠던 월 평균 판매목표 3750대는 8월 2920대를 기록하며 4개월 째 급감했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3월 17일 출시된 신형 투싼은 같은 달 4389대를 시작으로 본격 판매가 시작된 4월에 9255대가 팔리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5월부터 투싼 판매량은 급감했다. 5월 7270대, 6월 4929대, 7월 4209대, 8월 2920대가 팔렸다. 8월 투싼의 전월비,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은 각각 30.6%, 13.3%씩 뒷걸음질 쳤다. 투싼은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3만7344대 판매됐다.

업계에서는 신차출시의 효과를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투싼은 신차효과는커녕 판매량이 급감했다. 8월에는 월 평균 판매목표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투싼 출시 때 2016년 판매목표를 4만5000대로 잡았다. 내년에도 8월 판매량 수준과 비슷한 3000대 정도를 판매한다면 연간 판매 목표보다 약 1만대 못 미치는 판매량을 기록하게 된다.

현대차는 투싼의 해외 판매에 역점을 두는 모양새다. 투싼은 8월 미국 시장에서 6609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했다. 현대차는 대부분의 투싼 수출물량은 미국에서 판매된다고 전했다. 현대차의 투싼 수출량은 5월 5469대, 6월 1만4950대, 7월 1만4590대를 기록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수출해서 해당 국가에 도착하기 까지 2~3개월이 걸려서 이 물량을 우선적으로 선적하다보니 국내 판매가 많이 줄었다"며 "8월 근무 일수가 적은 부분도 국내 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티볼리는 광풍을 불러 일으키며 SUV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티볼리는 8월 국내에서 3488대가 팔리며 투싼을 앞질렀다. 티볼리는 1월 출시 이후 8월까지 월 평균 3252대씩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며 총 2만6023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티볼리는 터키,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 1만2110대 수출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현대·쌍용차, CUV·디젤 모델 유럽 첫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i20 액티브·티볼리 디젤 공개



i20 액티브(위)와 푸조 508.

이달 15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열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참가하는 국산차 업체가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

3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i20 액티브'를 유럽시장에 처음 공개한다.

i20 액티브는 유럽 전략차종 i20을 기반으로 개발한 크로스오버차량(CUV)이다.

내년 초 유럽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i20 액티브는 기존 i20 5도어 모델보다 전고를 20mm 높였다.

현대차는 보다 다양한 유럽 B세그먼트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3기통 1.0 터보 GDI 엔진을 i20 라인업에 추가로 적용한다.

쌍용자동차는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티볼리 디젤을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편 티볼리 롱보디의 양산형 콘셉트카 'XLV-Air'를 최초 공개한다.

쌍용차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XLV를 처음 선보인 바 있다.

티볼리 롱보디 버전은 기존 티볼리를 베이스로 전장과 전고를 확대했다.

파워트레인은 티볼리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XLV-Air를 통해 내년 초 선보일 티볼리 롱보디 버전의 스타일과 상품성을 미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세련된 디자인에 안정성·정숙성 극대화

시승기

렉서스 '올 뉴 ES300h'

전자제어 E-CVT 장착
스티어링 휠 빠른 응답
세단 매력 느끼기 충분


렉서스 '올 뉴 ES300h' 주행모습. /렉서스 제공

렉서스 '올 뉴 ES300h'는 시속 100km/h가 넘는 속도에서도 조용하면서도 승차감이 세단만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렉서스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통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델인 ES300h의 안정성과 정숙성을 극대화 했다.

2일 ES300h를 몰고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을 출발해 경기도 가평 베네스트 골프장까지 편도 65km를 달려봤다.

엑셀을 밟는 순간 울컥 거림 없이 부드럽게 속도가 붙었다. 이 차의 최고출력은 158마력(총 시스템 출력 203마력), 최대토크는 21.6kg·m다.

전자제어 무단변속기(E-CVT)가 장착돼 유단변속기가 가진 변속 충격도 없었다. 이 때문에 가속과 감속을 반복했던 올림픽대로에서도 정숙성·승차감이 좋았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들어선 후 최대로 속력을 올려봤다.

초반 가속력은 다소 딸리는 듯 했지만 엔진·배터리의 총 출력시스템이 가동된 203마력의 힘이 느껴졌다.

구불구불한 국도에서도 스티어링 휠의 응답력도 빠르고 정확했다.

뒷좌석 동승자도 승차감이 좋다고 반응했다. 연비는 12.4km/ℓ가 나왔다. 신형 ES300h의 공인 복합연비는 16.4km/ℓ다.

운전자의 선호에 따라 에코, 스포츠, 노멀 등의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슈프림, 프리미엄 트림에는 LED(발광다이오드) 헤드램프가 로우빔에만 적용됐고 이그제큐티브 트림에 로우빔·하이빔 모두 LED가 장착됐다.

실내 공간도 넉넉했다. 가격은 ES300h가 5180만원부터 6370만원까지 사양에 따라 선택한다.

/가평=정용기 기자 yonggi@

수입차, 개소세 인하에 추가할인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달 말부터 실시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3일 각사에 따르면 푸조·시트로엥의 공식수입원 한불모터스는 푸조를 모델에 따라 30만~50만원 인하했다. 여기에 프로모션이 적용되면 가격은 더 내려간다.

시트로엥은 최소 30만~55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그랜드 C4 피카소 인텐시브+ 모델은 개소세 인하분 적용으로 474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470만원이 추가 할인된다. DS3 소시크 모델은 3255만원으로 가격인하에 145만원이 추가 할인된다.

볼보코리아는 모델에 따라 44만~77만원까지 가격을 인하했다. V40 D3 키네틱은 3625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S80 T5 인스크립션 모델은 6352만원이다. 여기에 V40과 S80 구매 고객에게 최대 400만원의 현금 할인을 추가 제공한다.

/정용기 기자

스포츠 세단 '재규어 XE' 판매 시작

국내 모델 다섯가지
가격 4710만원 부터


재규어 XE.

재규어코리아(대표 백정현)는 스포츠 세단 재규어 XE의 국내 판매를 4일 시작한다.

사측에 따르면 재규어 XE는 알루미늄 인텐시브 모노코크 차체를 채택해 경량화와 강성을 확보했다.

자체 제작한 인제니움 디젤 엔진 등 효율성 높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다이내믹한 스타일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완성했다.

국내 출시 모델은 총 다섯 가지다.

XE 라인업은 △2.0리터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탑재한 'XE 프레스티지', 'XE R-Sport', 'XE 포트폴리오'와 △2.0리터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의 'XE 프레스티지' 및 △3.0리터 V6 수퍼차저 가솔린 엔진의 고성능 모델인 'XE S'로 구성했다.

XE 가격은 4710만원부터 6820만원까지다.

/이정필 기자

광고문의: 02)721-9826

metro 생활광고

프리미엄／수익형상가

소액투자 수익형 상가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내 상가로써 분양면적 780㎡전용면적 440㎡의 상가.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이있다. **급매가 11억** (수익률 년 7.2%) 현금3억원매수가능, 소액투자자한테 적합한상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앞 빌딩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위치한건물 대지 340㎡ 연면적 1100㎡ 현재 보증금 2억9천, 월 1700만원 임대료발생, 전층 근생업종이 입주해있고 의정부 핵심 상권인 신세계백화점 입구에위치 유동인구 최고의 상권임. **매매가 45억원**

핫 ! 이슈

홍익대학교 임대용 빌딩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한 임대수익용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510㎡ 연면적 270㎡의 부동산이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급매가 72억원

종로대로변 임대용빌딩

1호선 동묘역 출구 대로변코너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 540㎡ 연면적 1800㎡의 건물로써 병원등 우량한 임차업종이 입주해있다. 현재 보증금 9억원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매매가격 95억원

강동구 임대용빌딩

강동구 상업지역에 입지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10㎡ 연면적 3,300 ㎡의 건물 현재 보증금 8억원에 월 약6,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전층 병원 및 유명 프렌차이즈등이 입주해있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매물이다 .

매매가격 120억원

2호선 강남역빌딩

국내 최고 상권인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대기업등의 업무시설,어학원 및 근생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대지면적 340㎡ 연면적 2,000㎡ 근생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8억 6,000만원 월 7,8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매매가격 150억원

논현역 대로변 빌딩

7호선 논현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490㎡ 연면적 1,600㎡의 빌딩으로써 현재 보증금 3억2,000만원 월 3,1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

성형외과, 피부과등의 병원, 또는 사옥용으로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05억원



의정부시 을지대 병원앞 빌딩

현재 최고의 지기 상승 및 미래가치가 보장된 **을지대학교 신축부지앞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05㎡ 연면적 1200㎡의 임대용 건물이다.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의 임대 수익이발생. 향후 을지대학교및 부속병원이 완공될시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이 기대된다. 전층 근생업종 입주. **급매가 36억원**





길동역 , 대수선용빌딩

길동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대지면적 720㎡ 연면적 2,2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5억4,000만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 외벽 및 실내를 대수선공사 완료시 보증금 7억5,000만원 , 월 5,7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가격 110억원

2호선 봉천역출구 사옥 및 병원용빌딩



대지면적 530 ㎡연면적 2,000 ㎡ 의 건물로써 **2호선 봉천역 출구 대로변 코너에 위치 .** 사옥, 또는 병원등에 적합한 건물이다 . 현재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임대료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매매가 80억원**

문의전화 : 02)557-1027 / 010-5273-3985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프리미엄·역세권 / 빌딩·상가 매매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문의 : 010-9000-1782**

역삼역 역세권 수익용 신축빌딩



역삼역 3분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상권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520㎡, 건물 2,00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6억5,000만원, 월수익 6,400만원이 나온다. 신축건물이며 우량한 임차인구성으로 공실이 없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 매매가는 150억이다.

신논현역 메인상권 수익용 근생빌딩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메인상권 코너에 위치한 수익용 근생빌딩이다.대지 440㎡, 건물 1,600㎡, 지상6층 빌딩이며 보증금 6억4천만원에 월수익 6,500만원 정도다.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모든 임차업종이 근생으로 이루어져 공실염려가 전혀 없는 빌딩이고 매매가는 165억이다.

청량리 초역세권 대로변 급매각 빌딩



청량리역 앞 대로변 위치하여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은 임대용 급매빌딩이다. 대지 420㎡, 건물 1,100㎡, 지상5층이며 보증금 5억에 월수익 2,500만원 정도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개발호재 등 투자가치가 있는 빌딩이다. 매도인 사정상 급매로 진행하며 매입 후 임대관리 및 향후 신축시 수익성 및 투자가치를 급상승 시킬 수 있는 빌딩이고 매가는 58억이다.

역삼역 임대수익용 빌딩



역삼역 1분거리에 위치한 공실없는 임대수익용 빌딩이다. 대지 500㎡, 건물 1,250㎡, 지하1층 지상4층 근생빌딩임. 주변 프랜차이즈 식당 및 커피숍 등이 즐비한 활성화된 상권에 입지하였다. 보증금 4억 월수익 2,900만원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건물 상태는 최상이며 매가는 72억이다.

논현역 출구 앞 강남대로변 신축빌딩



논현역 출구 바로앞 광대로변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 대지 370㎡, 건물 2,85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약14억에 월수익 8,200만원 정도이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위주로 임차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가는 220억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동시에 향후 분당선 연장개발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희소성있는 특A급 빌딩이다.

대치동 사옥 겸 임대수익용 빌딩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사옥 및 임대용 빌딩이다. 대지 440㎡ 건물 1700㎡, 8층 건물이며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일부 사옥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학원 등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사옥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전체 임대수익용 빌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익률은 5%정도이며 매가는 110억이다.

강남역이면 구조조정 임대용 빌딩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 바로이면에 위치한 법인 구조조정 임대용빌딩이다.

대지 350㎡ 건물 2,000㎡ 지상10층 빌딩이며 현재 공실은 없으며 월수익 5200만원이고 수익률은 5.5% 정도이다. 법인 소유의 빌딩으로 사정상 주변 거래시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가는 110억이다.

고수익용 분양상가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분양상가 건물이다.분양면적 780㎡이며 현재 스크린골프업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으로 장기임차 중에 있다. 수익률은 8%이상이다. 주변지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향후 투자가치도 예상된다.

중고차 매매

- **싼타페DM 2륜 프리미엄 13년 1월 크림색**
  완전무사고 썬루프 정품네비 45000km (매매/2600)
- **더 뉴 아반떼 LPI 흰색**
  완전무사고 15년형식 35000km (매매/1160)
- **제네시스 모던 13년 4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후카 1만km (매매/3250)
- **뉴카렌스 GX 최고급형 검정**
  완전무사고 78000km (매매/900)
- **싼타페 CM SLX고급 흰색**
  썬루프 네비 스마트버튼 완전무사고 15만km (매매/1050)
- **더 뉴 아반떼LPI 검정**
  완전무사고 15년형식 47000km (매매/1160)
- **에쿠스 380 프레스티지 검정**
  완전무사고 15년 3월 네비 뒷좌석TV 6천km (매매/8550)
- **그랜져HG 240 검정**
  완전무사고 12년 2월 네비 후카 51000km (매매/2200)
- **카니발R 9인승 12년 7월 은색**
  완전무사고 네비 자동문 VDC 6만km (매매/2040)
- **더 뉴 K9 GDI VIP 14년 11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3천km (매매/6100)
- **스마트 흰색**
  완전무사고 14년 9월 2천km (매매/2330)
- **BMW 520D 12년 5월 검정**
  완전무사고 썬 네비 49000km (매매/4000)

문의 010-2727-5622

LGU+, 방통위 조사 중 또 다른 '불법' 의혹

유승희 의원 "조사 중 대규모 판매행사 진행"
판매원 수당 7배 높여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 유도한 혐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 받는 도중 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은 "다단계 판매관련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조사기간 중 대규모의 판매행사를 진행한 것은 법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사실조사를 착수해 3일 위원회 심결을 통해 제재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주)아이에프씨아이(2014년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8월 한달 동안 다단계 판매원의 승진 축하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상향했다.

판매 수당의 증가는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판매 수당 편취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유인해 다단계 판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이용자 피해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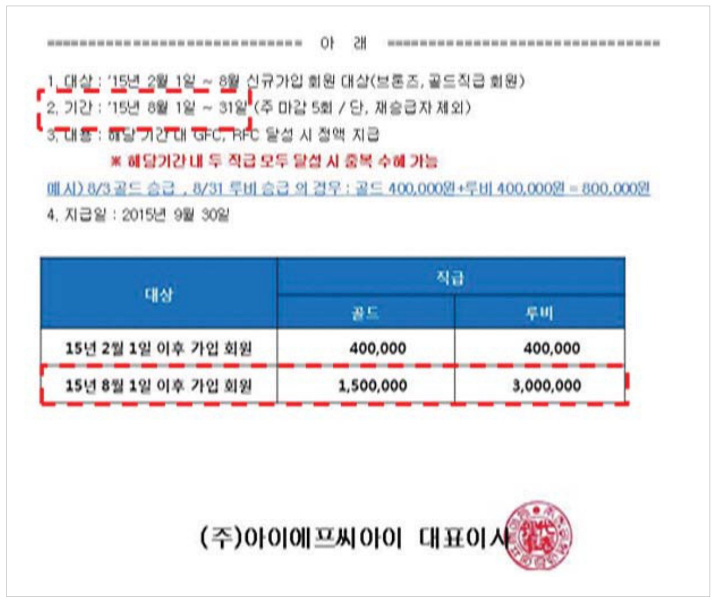
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이 대리점은 8월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 수당을 상향했다.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특정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또 이 업체는 방통위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25일 인천의 모처에서 수천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행사를 하기도 했다.

행사는 다단계 승급자 시상, 소감 발표, 다단계의 우수성 선전 등 사행심 조장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영업 실적확대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4월 방통위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사실조사를 주문했는데, 해당기업은 국회와 정부를 우롱하듯 조사기간 동안 버젓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렵혔다"고 지적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아 래

1. 대상 : '15년 2월 1일 ~ 8월 신규가입 회원 대상(브론즈, 골드직급 회원)
2. 기간 : '15년 8월 1일 ~ 31일 (주 마감 5회 / 단, 재승급자 제외)
3. 내용 : 해당기간 내 GFC, RFC 달성 시 정액 지급
※ 해당기간 내 두 직급 모두 달성 시 중복 수혜 가능
예시) 8/3 골드 승급 , 8/31 루비 승급 의 경우 : 골드 400,000원+루비 400,000원 = 800,000원
4. 지급일 : 2015년 9월 30일

대상	지급	
	골드	루비
15년 2월 1일 이후 가입 회원	400,000	400,000
15년 8월 1일 이후 가입 회원	1,500,000	3,000,000

(주)아이에프씨아이 대표이사

LG유플러스 다단계대리점 아이에프씨아이의 승진 축하금 정책. /유승희 의원실 제공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의 한 공식대리점에서 홍보 모델들이 스마트폰 '루나'를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T '루나' 오늘 출시… 출고가 44만9900원

SK텔레콤은 오는 4일 전용단말인 TG앤컴퍼니의 스마트폰 '루나'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 들어 6번째로 선보이는 SK텔레콤 전용단말인 '루나'의 출고가는 44만9900원이다.

국내 출시 안드로이드폰 중 최초로 메탈 유니바디를 적용하고 5.5인치 풀HD 디스플레이, 전면 800만·후면1,300만 화소 카메라, 3GB 램(RAM) 등 프리미엄급 사양을 갖췄다.

SK텔레콤은 4일 출시에 맞춰 루나에 최대 31만원(밴드100 기준)의 공시지원금 지원뿐만 아니라 선착순 5만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특별 고객 혜택도 제공한다. /정문경 기자

이통3사, 30개월 간 마일리지 1000억 소멸

전병헌 의원 "제도개선 필요"

지난 2년 반 새 통신요금 감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이동통신사 마일리지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고객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소멸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년 반(2013년~2015년 7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이동통신 고객 마일리지가 10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마일리지는 비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납부하는 이용요금이나 통화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주고, 각종 통화료 납부나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분		2013	2014	2015.7월까지
적립	KT	265	169	75
	SKT	183	148	88
	LGU+	42	22	16
이용	KT	117	91	75
	SKT	48	32	24
	LGU+	7.6	4.8	0.94
소멸	KT	229	212	104
	SKT	170	173	104
	LGU+	41	35	20

이통3사 고객 마일리지 적립, 이용 및 소멸현황. /전병헌 의원실 제공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납부요금 1000원 당 5원, KT는 국내 음성통화료의 0.5%~3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있다. 유효기간은 7년으로 7년간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수차례 문제를 지적한 결과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의 경우,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업자 중심으로 100% 환불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며 "이통3사의 고객 마일리지의 경우 최신 LTE 고객보다는 오래된 상품인 2G, 3G 이용자, 스마트폰보다는 일반폰 이용자 등 통신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소멸되기 전에 고객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문경 기자

방통위, SKT 영업정지·LGU+ 과징금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단통법 위반으로 일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신 요금할인제를 선택해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한 LG유플러스도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 제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LG유플러스 본사와 지역본부, 22개 대리점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때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에 차등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문경 기자

시민단체, 방통위에 'KT 고객차별 행위' 신고

위법행위 결론시 공정위에도 신고

시민단체들이 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향후 주무부처에서 위법행위로 결론이 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3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KT 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익제보로 확인하고,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결국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방통위에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KT가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문경 기자

"문화산업 세계 톱10 도약"

CJ그룹

5년내 매출 15.6조 목표 CGV 80% 해외 구축 등 E&M 영화 제작 확대도



이채욱 CJ주식회사 대표. /CJ그룹 제공

"CJ그룹은 문화사업 분야 매출을 2020년까지 15조6000억원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탑(TOP)10 문화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채욱 CJ주식회사 대표(부회장) 지난 2일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미디어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화사업 비전과 글로벌 전략을 밝혔다.

CJ그룹의 문화사업은 1995년 드림웍스 3억 달러(약 3500억원) 투자에서 시작됐다. 이는 당시 제일제당 연매출의 20%가 넘는 큰 금액이다.

이재현 회장은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20년간 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투자를 지속했다. 그 결과 CJ그룹의 문화사업 계열사인 CJ E&M, CGV, 헬로비전의 지난해 매출은 3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CJ 관계자는 "식품회사였던 제일제당이 현재의 글로벌 문화창조기업으로 탈바꿈해 '제 2의 창업'을 이룩한 것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CJ그룹은 2020년까지 문화사업 분야 매출을 현재에서 4배 이상 늘려 글로벌 탑1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세웠다. CJ CGV는 현재 한국,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6개 국가에 보유한 1637개 스크린을 2020년에는 12개국 1만여 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현재 연간 1억3000만 명인 CGV 관람객은 2020년 7억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또 CJ E&M은 외국인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IP(지적재산권) 확보에 주력해 세계적인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특히 영화사업부문의 경우 중국, 동남아 현지 합작 영화 제작 및 배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글로벌 사업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송사업은 해외 미디어 파트너와의 합작을 통해 다양한 진출을 꾀하고, 음악·공연사업도 현지와 글로벌 IP를 확대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 CJ E&M의 글로벌 매출 비중 역시 현재(8.5%)보다 크게 높여 43%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채욱 대표는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제조업 경쟁은 중국의 성장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CJ는 문화산업이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올 추석엔 당도높은 사과와 배 선물세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과일매장에서 직원들이 한가위를 앞두고 사과와 배 등 과일 선물세트의 당도를 측정하며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제수용 과일 사과(5kg/16)를 4만1000원, 배(7.5kg/12내)를 3만2000원에 판매한다. /농협유통 제공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1조 클럽 가입하나

'면세점+백화점' 매출 시너지 기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대표 황용득)는 면세점 사업과 백화점 매출 시너지로 내년 매출 1조 클럽 가입이 유력시될 전망이라고 3일 밝혔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해 오픈한 연간 1000억원 매출 규모의 제주공항면세점과 연말 오픈하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63빌딩 시내면세점 운영으로 면세점사업부문(제주+63빌딩)에서만 내년 60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백화점 사업부문 매출인 5000억원을 합하면 1조1000억원으로 1조 클럽에 가입 자격을 갖추게 된다.

/박상길 기자 sweatsk@

HDC신라, 시내면세점 종합점수 '1위'

HDC신라(대표 이부진·정몽규)가 지난 7월 진행된 서울 시내 대형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종합점수 844점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한 HDC신라가 대기업 7곳이 참여한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에서 844점을 획득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대표 황용득)는 806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탈락한 업체 중에는 3위를 차지한 호텔롯데가 790점을 받았으며 신세계DF(775점), SK네트웍스(773점), 이랜드(764점), 현대DF(762점) 순이었다.

홈플러스 우선 인수 협상자 'MBK파트너스'

현재 인수 가격 조율 중 노조 등 외부요소 관리도

테스코의 홈플러스(사장 도성환) 매각 우선 협상자로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가 선정됐다.

3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가격을 조율 중이다.

당초 본입찰에서는 MBK파트너스, KRR,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골드만삭스, 칼라일 등 5개 사모펀드(PEF)가 경쟁했으며 MBK파트너스가 최종 승자가 됐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MBK파트너스는 내부적으로는 가격 조율에 몰두하는 한편 홈플러스 노동조합에게 회유편지를 보내는 등 외부적인 불안요소까지 관리하고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김병주(53) 회장의 영문 이름인 '마이클 병주 김'의 이름을 딴 투자금융회사로 김 회장은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넷째 사위다. 김 회장은 하버드대 MBA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살로먼 스미스마니(현 씨티그룹),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1999년 살로먼 스미스바니 아시아 지역 투자금융 최고운영자와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MBK파트너스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이어 국내 투자금융부문 2위다. 지난 10년간 국내 최대인 6조~7조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1월 웅진코웨이를 1조2000억원에 인수한 뒤 현재는 매각을 준비 중이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 C&M의 최대주주인 IHQ에 미래에셋, 맥쿼리와 함께 투자를 진행했다. MBK파트너스의 투자 후 C&M의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은 계약만료와 함께 해고됐다.

당시 C&M 노동조합 측은 177일간 노숙농성을 전개했고 지난해 12월 31일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가 철회돼 전원 복귀됐다. /김성현기자 minus@

롯데百, 오늘 롯데아울렛 광교점 오픈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4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롯데아울렛 광교점'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16번째 아웃렛이자 10번째 도심형 아웃렛이다.

광교점은 30~40대 젊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상권 특성을 반영해 '패밀리형'으로 꾸며졌다. 식음료와 생활용품 매장 비중이 기존 도심형 아웃렛의 3배에 이르며 한식 뷔페 '풀잎채', 부산의 명품 한식집 '풍원장' 등 유명 맛집이 들어섰다.

추석 차례상 차림비 전년보다 0.8~1.9%↑

쇠고기·채소류 4~22%↑

올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년 대비 0.8%~1.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추석을 4주 정도 앞두고 차례상차림 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T가 전국 17개 지역 41개소(전통시장 16개, 대형유통업체 25개)를 대상으로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9만6000원, 대형유통업체는 2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0.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는 한우 사육두수 감소로 가격이 전통시장 기준 17.4%정도 상승했다 쇠고기 1.8kg당 6만3920원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추석(9월 8일)보다 19일 늦어(9월 27일) 적정 숙기를 경과한 사과·배·밤·대추 등 과실류의 출하가 원활해져 가격은 지난해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김성현 기자

롯데네슬레, 사은품 보온병 17만개 리콜

롯데네슬레코리아(대표 이상률)가 사용 중 저절로 뚜껑이 열리는 문제가 나타난 증정 보온병에 대해 무상 교환 해준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스카페 보온병 뚜껑이 저절로 열린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뜨거운 내용물에 의한 내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저절로 뚜껑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롯데네슬레코리아에서 현재 판매중이거나 이미 판매된 커피의 보온병에 대해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서성환 창업자의 母 윤독정여사.


동백기름 제조에 사용된 기기들.


국내 최대 화장품 자동화 시설을 도입한 영등포 공장.


1964년 방문판매원의 모습.

동백기름에서 'K-뷰티' 대표주자로

아모레퍼시픽 창립 70주년

글로벌 뷰티 브랜드 도약 2020년 매출 12조원 목표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회장 서경배·사진)이 5일로 창사 70주년을 맞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명실 공히 'K-뷰티'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의 효시는 선대 회장의 모친 윤독정 여사의 동백기름이었다.

◆동백기름에서 시작된 'K-뷰티'

1930년대 여인들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 좌우 가르마를 탄 후 비녀를 찔러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했다. 고 서성환 아모레퍼시픽 창업회장의 어머니인 윤독정 여사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는 동백기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동백나무 열매를 곱게 빻아 기름틀에 넣은 후 압착해서 추출한 기름을 결이 고운 베로 걸러내는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남부 지방 해안가를 오가는 보부상들을 통해 동백나무 열매를 구하는 등 좋은 품질을 위해 노력한 끝에 윤 여사의 동백기름은 입소문을 타 화장품 제조로까지 이어졌다.

'창성상점'이라는 간판을 걸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무렵 서성환 선대 회장도 어머니 사업을 돕기 시작했다.



서 창업회장은 1945년 중국에서 광복을 맞았다. 일제시대 중국으로 징용 갔던 서 창업회장은 해방 후 바로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 머물며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대한 안목을 높였다. 귀국 후 서 창업회장은 어머니 사업에 영향을 받아 화장품을 통해 아시아의 미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을 창업했다.

품질을 중시하던 윤 여사의 철학을 이어받아 창업한 아모레퍼시픽은 194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표를 붙인 화장품 메로디 크림을 출시했다. 1951년 식물성 원료인 피마자유를 이용해 순식물성 ABC 포마드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1959년 태평양화학공업으로 법인을 전환한 뒤 2006년 6월 화장품·생활용품·식품 사업부문을 태평양과 아모레퍼시픽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2011년 3월 태평양을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는 주요 계열사로 아모레퍼시픽·태평양제약·에뛰드·아모스프로페셔널·퍼시픽글라스·이니스프리 등을 거느리고 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70년 역사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70년 역사가 호락호락했던 것만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주력 사업인 화장품 외에 건설, 증권, 패션, 야구단, 농구단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1994년 경영 전면에 나선 서경배 회장은 다른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화장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면 재편, 화장품 회사의 본질을 강화했다. 화장품 한우물만 판 결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은 2011년 3조585억원,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에서만 8325억원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52.8%나 성장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화장 인구가 1억명을 넘어선 중국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35%나 성장했다.

한방화장품 설화수는 물론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이 중국과 홍콩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아이오페도 올해부터 중국 백화점에 진출한 상태다.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의 도약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에서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0년까지 '원대한 기업'(Great Global Brand Company)이라는 비전 아래 매출 12조원, 영업이익율 15%, 글로벌 사업 비중 5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북미·서유럽·동남아시아·중국·일본 등 세계 5대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Asian Beauty Creator)'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자 한다"면서 "30억 아시아인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기업, 나아가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아시아의 문화가 품어 온 미(美)의 정수(精髓)를 선보이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요 연혁

1945. 09 태평양 창업
1948. 01 한국 최초 상표 붙인 '메로디 크림' 발매
1951. 11 국내 최초 순식물성 'ABC포마드' 발매
1954. 08 장업계 최초 연구실 개설
1964. 08 국내 최초 화장품 수출(오스카화장품)
1964. 09 아모레 브랜드 발매·방문판매 제도 도입
1971. 04 국내 최초 메이크업 캠페인 실시
1973. 03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설립
1978. 10 태평양기술연구소 설립
1979. 12 태평양화장사관 개관
1980. 12 제17회 수출의날 대통령표창
1982. 04 태평양복지재단 설립
1987. 06 태평양화학(주)로 상호 변경
1990. 09 프랑스 현지 법인 설립
1992. 06 아모레퍼시픽그룹 중국지사 설립
1993. 03 주식회사 태평양으로 상호 변경
2002. 03 'AMOREPACIFIC' 사명 변경
2014. 10 상하이 뷰티사업장 준공

'최초'·'최고'를 향한 여정

국내 최초 화장품 연구실 운영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역사에는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아모레퍼시픽은 1948년 국내 최초로 상표를 붙인 화장품인 메로디크림을 출시해 돌풍을 일으켰다. 해방 직후라 보부상들이 용기·상표 없이 큰 통에 들어 있는 화장품을 집집마다 필요한 만큼 덜어서 팔던 시대였다.

1951년 출시한 순식물성 포마드인 ABC 포마드는 서 창업회장이 "지금의 아모레퍼시픽그룹을 만든 뿌리"라고 회고했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휴전 직후인 1954년에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대로 사옥을 이전했다. 한강로에 터를 잡은 이후에는 빠르게 성장해 나갔으며 이때 만들어진 화장품 연구실도 국내 최초다. 후암동 연구실은 공장 한편을 개조해서 만든 두 평 남짓한 연구실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혁신이나 다름없었다. 1950년대 후반 출시된 염색약 ABC 흑발과 ABC 파마약 등은 연구실의 결실이었다.

1959년에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인 코티와 기술 제휴를 맺었으며 1962년에는 영등포공장을 준공했다. 국내 최초로 화장품(오스카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한 것도 선대회장 때다. 같은 해인 1964년 아모레 상표를 도입, 업계 최초로 화장품 방문판매 제도를 실시했다.

1966년에는 세계 최초의 한방 화장품인 ABC 인삼크림을 출시했다. 21세기 아모레퍼시픽 대표상품인 설화수의 모태가 된 제품이다. 설화수는 2009년 국내 화장품 중 처음으로 단일 품목 매출액 5000억원을 넘어섰다. 한방화장품 개발에 열정을 쏟은 지 43년 만에 일군 성과다.


1954년 화장품업계 최초 연구실 개설. /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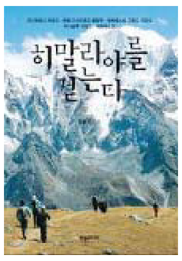
2008년 세계 최초로 콩에서 미백·보습 성분인 오-디하이드로시이소플라본을 발견해 화장품 성분으로 만드는 등 화장품 시장의 기술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며 국내 화장품 업계를 선도해 온 아모레퍼시픽의 발자취 뒤에는 한발 앞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경영진의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도전, 혁신, 창조의 DNA가 이어져 화장품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정은미 기자

60일간 히말라야 트래킹 여정

|신간| 히말라야를 걷는다

퇴직 후 배낭 하나로 나선 걸음 설산의 위용·순수한 영혼… 길 위에서 만난 추억의 기록



히말라야의 설산은 산악인들의 고향이다. 스스로 이방인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샹그릴라를 경험하게 되는 인간과 신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한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이라면 가슴앓이를 하며 그리워한다.

저자 김동규는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에, 오랫동안 꿈꿔 오던 히말라야를 향해 떠났다. 달랑 배낭 하나 등에 메고, 가슴으로 낯선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았다. 60일 동안 혼자서 안나푸르나 라운드, 랑탕·고사인쿤드·헬람부, 그리고 에베레스트 그랜드라운드를 샅샅이 걸었고, 다음 해 또 마나슬루 라운드와 어퍼무스탕을 걸었다. 걸으면서 설산의 위용을 지켜보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들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진정한 히말라야의 철학을 깨닫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냈다. 이 책에는 혼자 걷는 여유로움과 걷기의 즐거움이 담겨 있다. 길에서 만나는 어린 왕자들을 통해 꿈을 꾼 듯 현실과 상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들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가슴에 담아 그들을 추억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히말라야에 대한 모든 역사, 지식을 다 찾아내어 서술했다. 히말라야가 궁금하면 살아있는 이 책을 읽어보라고 자신 있게 권한다.

저자는 인생 후반전을 책상 앞이 아닌 길 위에서 보내기로 작정했다. 퇴직자들에게 삶의 자양분을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는 자신만의 진짜 인생이 되길 당부한다.

"누구에게나 하고 싶었던 꿈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을 나서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 두려움은 떠나는 순간 사라질 것이다. 인생은 예비하지 않아도 늘 새로울 수 있다는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 그리 길지 않은 여정을 기록해 남긴다."

네팔은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수입에 이어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지난 4월 규모 7.8 강진으로 유명 트레킹 지역도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포스트 몬순 시즌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안전한 트레킹이 가능하도록 모든 트레일의 복구와 정비를 완료했다.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히말라야 책이 출간됐다.

◇김동규 지음·한솜미디어 발행·296쪽·1만5000원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모자샵에서 만나는 건축가 '가우디' 예술혼

'피리부는 고양이'

안토니 가우디 아트상품 판매 구매고객 전시회 초대권 증정

'좋은 모자, 편한 모자, 예쁜 모자'를 지향하는 모자 샵 '피리부는 고양이'가 '예술이 된 건축, 건축이 된 예술'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전 아트상품으로 판매·전시를 하고 있다.

피리부는 고양이는 25일까지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11월1일까지 전시하는 '바르셀로나를 꿈꾸다:안토니 가우디전' 초대권 2매를 증정한다.

또한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아 부모님 효도선물로 6만원 이상의 모자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출판한 인문서적 1권를 증정하는 한가위 효 이벤트를 진행한다.

피리부는 고양이의 모자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어울리는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얻고 있다. 또한 리폼을 통해 하나뿐인 나만의 유니크한 모자를 만들 수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문화와 낭만을 찾는 지친 도시인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힐링의 쉼터도 제공한다. 문의 : 02-2269-8799

/정은미 기자 21cindiun@

커피·튀김, 과다 섭취땐 갱년기 2차 질환 초래

닥터 Q&A



나영철 원장 (황금사과 갱년기클리닉)

-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박사 (병리학 전공)
- 前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외래교수
- 現 오행발효한약 연구소 소장
- 現 오행약침연구회 회장
- 現 대한실용한의학회 회장
- 現 안산 '사랑의학교(야학교)' 교장 (1995설립~현재)

Q. 갱년기를 치료할 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A. 갱년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연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석류나 콩, 토마토 등 갱년기 개선에 탁월한 음식 한 두 가지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갱년기 증상 개선에 해가 되는 음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갱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갱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은 물론 해가 되는 음식들도 숙지하고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 해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기름기가 많은 육류나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등을 들 수 있다. 갱년기로 인해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면 폐경 이전보다 혈관 내 콜레스테롤 축적량이 많아지고 혈관이 쉽게 좁아진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체내 유해 콜레스테롤 축적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갱년기에는 분비량이 줄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기름진 음식들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음용 빈도가 높은 커피가 대표적이다. 사실 커피나 홍차 등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음료는 적당히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갱년기에 감퇴할 수 있는 기억력을 회복시키거나 가라앉은 기분을 달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카페인 과다 섭취는 갱년기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중 하나인 안면홍조, 열감 등을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미네소타주 메이오 클리닉에서 40세 이상 여성 18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는 여성들은 홍조 현상과 열감으로 인한 발한 등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갱년기 여성들은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진 설렁탕이나 곰탕, 생선 알 요리 등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워낙 고단백 식품이므로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섭취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저하된 상태에서 진한 고기 국물 요리나 생선 알 등을 과섭취 하면 요산 분비를 촉진시켜 뼈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킨다. 이는 갱년기에 유병률이 높아지는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음식 섭취는 갱년기에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갱년기 극복 음식을 섭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삼가야 할 음식도 체크해보고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갱년기도 엄연한 '질환'이며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갱년기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두드러지면 갱년기 전문 치료 기관을 방문해 진맥과 검진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증상을 확인한 후 육계(계피)와 황련을 주 재료로 한 황춘탕(黃春湯)을 복용하면 개선효과가 높다. 황춘탕은 몸의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을 조절해 호르몬 저하로 인해 무너진 신체 밸런스를 맞춰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또한 약재의 성분뿐 아니라 평소 섭취하는 음식에 유효한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이화의료원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2관왕

장관상·보건복지위원장상

국내 유일 여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여성암을 비롯한 여성질환 치료 분야를 집중 육성해 온 이화여대 의료원이 '2015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일 나인트리컨벤션광화문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이 종합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가 종합병원 부문 대상인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암 전문의 보유, 여성암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운영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진료 서비스 ▲여성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지속적 도입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종합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는 오랜 기간의 임상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치과가 함께 진료하는 체계를 통해 종합적이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면장애 진단과 표준화된 최신 치료법을 제공,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이번 보건복지위원장상을 받았다.

/최치선 기자

강남도 '스스로국어'로 한글마스터 도전

재능교육 한글교재 인기



지난 28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강남을 지도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도전에서 실패한 강남의 한국어 공부에 도전장을 냈다. 방송에서 강남은 스스로국어A(사진) 레벨테스트지를 풀었고,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결자음 쓰기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개인별 진도처방을 받았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강남은 일본에서 거주하다 현재 그룹 엠아이비의 보컬이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와 '나 혼자 산다'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말하기에 비해 한국어 쓰기가 턱없이 부족한 강남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온 터라 말하기에는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나 '낱말 쓰기'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대부분 틀린 답을 적었다.

스스로 교재의 특징은 재능 스스로 선생님이 학습자에게 친숙한 낱말을 의미 범주별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게 하는 것이 특장점이다. 충분한 문장 학습과 동화 읽기를 통해 국어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놀이를 통한 학습으로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마성의 완벽남 변신



배우 **온주완**이 SBS 새 수목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을 통해 마성의 완벽남으로 변신한다. 극중 해원철강 상무이자 해원중고 이사장 서기현 역을 맡았다. '용팔이' 후속으로 방송된다.



'카라시아' 투어 진행

걸그룹 **카라**가 9월 한 달 동안 투어 콘서트 '카라시아'를 일본에서 개최한다. 지난 1일 오사카에서 시작된 이번 공연은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7개 도시에서 총 13회에 걸쳐 펼쳐진다.

佛 화장품 브랜드 뮤즈



배우 **전도연**이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시슬리'의 뮤즈가 됐다. 시슬리 측은 "전도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서 연기활동에 대해 프랑스 본사에서도 높은 지지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가을 남자로 변신

밴드 **씨엔블루**가 정규 2집 '투게더'의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차분한 가을 분위기에 맞는 남자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씨엔블루는 오는 14일 정규 2집을 발매하고 1년 7개월 만에 컴백한다.

추격스릴러로 컴백



배우 **손현주**가 다음달 22일 개봉하는 추격스릴러 영화 '더 폰'으로 극장가를 찾는다. 1년 전 살해당한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 남자가 과거를 되돌려 아내를 구하기 위해 벌이는 사투를 그렸다.



배우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왼쪽)와 이기홍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메이즈 러너:스코치 트라이얼' 내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훈내 풀풀… "우리는 쿨하고 좋은친구"

영화 '메이즈 러너2'로 내한 이기홍·토마스 브로디 생스터

지난해 흥행한 작품의 속편
우정·희망 등 공감가는 주제

한국계 배우라는 책임감도
韓 팬 환대 감사… 또 찾을 것



지난해 개봉한 '메이즈 러너'는 싱그러운 매력의 신예 배우들의 활약으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도 281만 관객을 모았다. 딜런 오브라이언, 카야 스코델라리오와 함께 영화의 인기를 견인한 주인공은 바로 배우 이기홍과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다.

오는 17일 개봉을 앞둔 속편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의 홍보를 위해 이기홍과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가 한국을 찾았다. 두 사람을 3일 오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만났다. 영화 속에서 절친한 친구로 호흡을 맞춘 이들은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남다른 우정을 과시했다.

1986년생인 이기홍은 한국에서 태어나 6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 배우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에서 맡은 역할도 한국계 캐릭터인 민호다. 힘든 상황에서도 강인함과 씩씩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미국 연예지 피플 선정 '세계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 4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에 오니 집에 돌아온 것 같다"고 인사말을 전한 이기홍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말과 영어를 자유롭게 쓰면서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그는 "한국계 배우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시리즈를 통해 남성적이고 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계 배우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배우뿐만 아니라 작가, 감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다. 이기홍은 영화 속 민호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 "아내가 '영화 속 민호는 섹시하지만 당신은 아니야'라고 말한 적 있다. 그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고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토마스 브로디-생스터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짝사랑에 빠진 소년으로 등장해 국내에도 친숙한 배우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에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뉴트 역으로 출연해 젊은 여성 팬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인기 비결로 "우정과 사랑, 형제애, 그리고 희망과 행복 등 모든 연령대가 공감할 메시지"를 꼽았다. 또한 "지구 종말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영화의 주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영화로 만난 두 사람은 촬영장 밖에서도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토마스 브로디-생스터는 이기홍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사람'이다. 영화에서는 강인하고 민첩한 캐릭터지만 실제로는 귀여운 친구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멋진 커플이기도 하다"고 칭찬했다. 이에 이기홍은 "배우로 일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토마스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다. 조용하면서도 쿨한 친구다.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고 친구가 될 수 있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기홍과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는 3박 4일의 내한 일정 동안 레드카펫 행사와 기자회견, 관객과의 대화 등으로 한국 팬과 만났다.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간다"며 "다음 영화로 또 한국을 찾고 싶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사도', 한국 대표로 아카데미 도전

외국어 영화부문 후보 출품
이준익 감독, 두 번째 도전

이준익 감독의 영화 '사도'가 제88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 영화부문에 한국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됐다고 배급사 쇼박스가 3일 전했다.

아카데미 영화상은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 최대의 영화상이다. 외국어 영화부문은 각 나라마다 한 편만 출품작을 등록할 수 있다. 제88회 영화제는 내년 2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 대표로 '사도'를 낙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사도'는 한국 역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외국인도 충분히 공감할 보편적인 내용으로 수준 높게 연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준익 감독은 지난 2007년 '왕의 남자'가 제79회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 영화부문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아카데미에 도전하게 됐다. 앞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와 심성보 감독의 '해무'가 2013년과 2014년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도'는 어떤 순간에도 왕이어야 했던 아버지 영조(송강호)와 단 한 순간이라도 아들이고 싶었던 세자 사도(유아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는 16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당신의 화장대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화장대를 부탁해
매주 목요일 밤 9시
패션앤
SUN DAY CREAM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FashionN

더 깊어진 스토리로 가을 감성 적신다

9월에 만나는 창작뮤지컬 2選

창작뮤지컬의 흥행역사를 새로 쓴 '형제는 용감했다'와 '풍월주'가 9월,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3년 만에 무대에 다시 오른 스타 연출가 장유정씨의 '형제는 용감했다'는 실력파 배우들의 출연과 함께 더욱 탄탄해졌다. 신라시대 남자기생 풍월이라는 참신하고 독특한 소재의 '풍월주'는 풍월인 열과 사담 그리고 진성여왕의 얽히고 설킨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마니아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스타 연출가 장유정의 '형제는 용감했다'

'형제는 용감했다'는 '안동 종갓집'이라는 한국적인 소재를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세련미있게 풀어내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창작 뮤지컬계의 미다스 손이라 불리는 장유정 연출과 장소영 음악감독 콤비의 대표작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창작 뮤지컬로 정준하, 윤희석, 최재웅, 김동욱, 정욱진, 동현(보이프렌드)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는 철없는 종갓집 종손 '석봉'과 서울대 출신으로 똑똑하지만 욱하는 성격을 가진 동생 '주봉'이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3년만에 만나 안동 종갓집의 유산을 물려받은 미모의 여인 '오로라'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좌충우돌과 인물들의 성장을 통해 감동을 준다.

한국 창작뮤지컬계에 돌풍을 일으킨 작품으로 이번이 7번째 시즌이다.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소재와 음악으로 유쾌한 웃음과 가슴 따뜻해지는 감동을 전하며 평소 소홀히 여겼던 가족애와 형제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1월 8일까지 공연한다. 제작 PMC프로덕션. 문의 1666-8662.

◆신라시대 남자기생 소재 '풍월주'

고대 신라시대 남자기생 풍월이라는 참신하고 독특한 소재의 '풍월주'는 풍월인 열과 사담 그리고 진성여왕의 얽히고 설킨 운명을 다룬 창작뮤지컬이다.

더욱 강력해진 캐스팅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작품성으로 오는 8일 대학로 쁘띠첼 씨어터에서 막을 올린다. 2012년 초연 이후 세번째 시즌 공연이다.

풍월주는 슬프면서도 매력적인 스토리, 중독성 강한 넘버로 호평을 받으며 2011년 CJ 크리에이티브마인즈에 선정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즌 공연에는 국악기 연주자가 직접 무대에서 라이브로 음악을 들려주며 애절함과 진한 여운을 더할 예정이다.

신라시대 남자기생들이 머무는 운루 최고의 풍월이자 진성여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열' 역할에는 2012년 초연 무대에 섰던 탁월한 무대 소화력의 배우 성두섭과 흡입력있는 무대로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는 이율이 다시 캐스팅됐다. 여기에 김대현이 새롭게 합류한다.

'열'의 오랜 벗이자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사담'역에는 김지휘를 비롯해 윤나무, 그리고 김성철이 연기한다.

권력으로 열의 마음을 뺏으려 하는 '진성여왕' 역에는 '유도소년' '카포네 트릴로지'에서 선굵은 연기와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은 정연과 '빨래' '로기수' '여신님이 보고계셔'에서 풍부한 감성과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이지숙이 맡았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한 진성여왕이란 인물의 연민과 공감을 그린다.

11월 22일까지 대학로 쁘띠첼씨어터에서 공연된다.제작은 CJ E&M이 맡았다. 연출 김동연, 극작 정민아, 작곡 박기헌. 문의 02-749-9037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도심 속 울려 퍼지는 재봉틀 소리

◆ KBS2 '다큐 3일'

일요일 오후 10시55분



화려한 서울 도심과 가까운 고갯길에서 묵묵히 재봉틀을 돌리는 만리동 고개 봉제 골목에서의 3일을 밀착 취재한다. 만리동 고개의 일과는 예상할 수 없다. 그날 아침에 들어오는 주문에 맞춰 제작 일정이 잡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동대문에서 주문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만리동 고개가 움직인다. 주문이 들어오면 봉제 공장에서는 재단을 하고 재봉틀을 돌린다.

/하희철 기자 hhc@

◆ KBS1 '넥스트 휴먼'

토요일 오후 10시

'마지막 크로마뇽인' 편이 방송된다. 근대사회까지의 인류가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 과정을 그렸다. 환경에 따른 식량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류의 소화기관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추적한다.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2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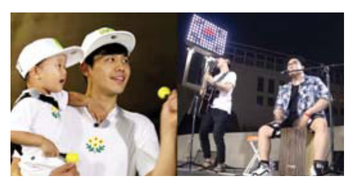
칠레로 간 박명수는 푼타아레나스에서 사연의 주인공을 만난데 이어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과 접촉을 시도한다. 남극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갖은 고생 끝에 대원들을 만난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토요일 오후 5시

주안이는 엄마 김소현이 뮤지컬 공연을 하러 가고 집에서 노는 것도 심심해지자 아빠 손준호에게 한밤중 여행을 제안했다. 이에 손준호는 주안이와 함께 즉흥 '서울야경 여행'을 떠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올`리브
5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어리 이야기 2 15:05 생로병사의 비밀 (재) 16:00 역사저널 그날 (재) 17:00 2015 KBS대기획 넥스트 휴먼(재) 18:00 동행 19:10 다큐 공감 20:00 이어령의 백년서재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다큐멘터리 몬순 22:35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3:45 콘서트 7080	11:3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2:2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3:25 개그 콘서트 (재) 15:00 슈퍼맨이 돌아왔다 16:45 나를 돌아봐 스페셜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3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3:50 별난 며느리 (재)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3:20 화정 (재) 14:25 밤을 걷는 선비 (재) 15:40 쇼! 음악중심 16:50 우리 결혼했어요 18:20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첫회) 22:00 내 딸, 금사월 (첫회) 23:15 2015 DMC 페스티벌 개막특집 K-ICT와 함께하는 K-POP 슈퍼콘서트	10:50 접속! 무비월드 12:10 애인 있어요 (재) 13:20 미세스캅 (재) 15:50 런닝맨 (재) 17:00 오!마이 베이비 18:25 질주본능 더 레이서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23:10 1000회 특집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24:15 심야식당	10:1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30 비정상회담 (재) 13:20 썰전 (재) 14:35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15:5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7:10 비정상회담 (재) 18:30 라스트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라스트 21: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00 박스 24:30 라스트 (재)	10: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5:30 엄지의 제왕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알토란 (재)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3:00 속풀이쇼 동치미 24:50 천기누설 스페셜 (재)	11:30 두번째 스무살 (재) 12: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4:40 수요미식회 (재) 16:10 젠틀맨리그 (재) 17: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9:10 두번째 스무살 (재) 20:30 두번째 스무살 21:40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23: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1:00 오늘 뭐 먹지? 12:00 2015 테이스티로드 13:00 올리브쇼 2015 14:10 비법 15:40 오늘 뭐 먹지? 16:50 2015 테이스티로드 18:00 비법 19:30 집밥 백선생 21:00 2015 테이스티로드 22:00 오늘 뭐 먹지? 23:00 2015 테이스티로드 24:00 비법
6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스카우트 2 14:2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5:10 다큐 공감 (재) 16:00 2015 KBS대기획 넥스트 휴먼(재) 17:40 동물의 왕국 18:00 황금의 펜타곤 시즌3 19:10 도전 골든벨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다큐멘터리 몬순 22:40 역사저널 그날 23:30 취재파일 K 24: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어송포유 24:55 영화가 좋다 (재)	10: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1:50 MBC 뉴스 12:00 출발! 비디오 여행 13:10 앙코르 2015 DMC 개막특집 K-ICT와 함께하는 K-POP 슈퍼콘서트 14:20 내 딸, 금사월 (재)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시사매거진 2580 24:05 서울드라마 어워즈 2015 출품작 원녀일기	09:30 TV 동물농장 10:50 정글의 법칙 (재) 12:10 애인 있어요 (재) 13:15 용팔이 (재) 15:40 SBS 인기가요 16: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10 2015 서울 드라마 어워즈 출품작 마술사 후디니 1~2부	10:20 박스 (재) 11: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3:00 JTBC 뉴스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비정상회담 (재) 15:5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7:10 2015 U-17 국제청소년축구대회 19:40 JTBC 뉴스룸 20:3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21:45 김제동의 톡투유 23: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4:00 박스 (재)	10:00 MBN 뉴스와이드 2부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5:50 아궁이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재) 19:40 MBN 뉴스 8 20:3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40 천기누설 23:00 알토란 24:40 아궁이 (재)	10:10 Let 미인 5 (재) 11: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3:00 두번째 스무살 (재) 15:40 집밥 백선생 (재) 17: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30 문제적 남자 24:00 처용 2 (재)	10:00 비법 11:30 주문을 걸어 12:30 오늘 뭐 먹지? 14:00 2015 테이스티로드 15:00 비법 16:30 올리브쇼 2015 17:30 마스터셰프 코리아3 더 레시피 18: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스페셜 19:00 유미의 방 19:30 비법 21:0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22:20 2015 테이스티로드 23:20 오늘 뭐 먹지? 24:00 언제나 칸타레2

우사인 볼트 덮쳐 '십년감수' 한 카메라맨

스포츠 주간 해프닝

우사인 볼트(29·자메이카)가 TV 카메라 기자가 모는 이륜 바이크와 충돌해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볼트는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에서 19초55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세리머니를 펼치는 도중 TV 카메라 기자와 넘어지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나왔다.

볼트는 세리머니를 위해 자메이카 국기를 목에 두르고 카메라 기자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한 방송사 기자가 이륜 바이크(segway)를 타고 이를 영상에 담았다.

볼트의 뒤를 따라가던 기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이륜 바이크를 탄 채 볼트 뒤를 덮쳤다. 볼트는 뒤로 넘어졌다. 모두가 놀랐으나 볼트는 곧 일어나 기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뛰어난 운동신경 덕분에 부상은 하지 않았다.





①우사인 볼트가 TV카메라 기자와 부딪힌 뒤 부상 부위를 확인하고 있다. ②커트 카살리. ③제15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10m 허들 결승에서 아리에스 메리트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AFP·AP연합뉴스

홈런치고 베이스 돌다가 부상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여유로워야 할 홈런 베이스 러닝 도중 타자 주자가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탬파베이 레이스의 포수 커트 카살리(27)는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 경기 도중 불의의 부상을 겪었다.

카살리는 탬파베이가 6-10으로 끌려가던 5회말 구장 좌측으로 큰 타구를 날렸다. 최종적으로 104m를 날아간 홈런이 됐지만 타격 순간 홈런을 직감할 만큼 커다란 타구는 아니었다. 그것이 불운이 됐다.

카살리는 1루로 전력 질주했고 이후 베이스를 도는 도중 통증을 느꼈다. 결국 다리를 절면서 베이스를 돌아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다.

진단 결과 카살리는 왼쪽 허벅지 뒤쪽(햄스트링)을 다친 것으로 판명됐다. 탬파베이는 그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카살리는 "처음에는 홈런인지 몰랐다. 2루타 정도를 예상하고 급하게 뛰었는데 1루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찌르는 듯한 느낌이 왔다"고 설명했다.

신장이식수술 앞두고도 동메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신장 기능이 20%도 남지 않은 상태로 메달을 획득한 인간 승리 드라마가 펼쳐졌다. 아리에스 메리트(30·미국)가 그 주인공이다.

메리트는 지난달 28일 대회 남자 110m허들 결승에서 13초04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미국 NBC스포츠는 "메리트는 2일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다. 메리트는 2013년 모스크바 대회를 마치고 희귀성 유전자 결함으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의 권유를 만류하고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수술을 미룬 것이다.

메리트는 남자 110m허들 예선을 통과한 뒤 "다음 라운드에 뛸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을 발휘해 결국 동메달을 따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EPL, 이적 시장에 1조5000억… 역대 최고치

스페인 보다 두 배 많아

지난 1일(한국시간) 마감된 유럽 축구 여름 이적시장(트랜스퍼 윈도)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이 지급한 이적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딜로이트의 이적시장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총 8억7000만 파운드(약 1조50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보다 4% 더 많은 수준으로 사상 처음 10억 파운드(약 1조8000억원)를 돌파했다. 2002년 이적시장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총 이적료는 73억 파운드(약 13조2000억원)를 넘어섰고 이 중 80%가 여름 이적시장에서 쓰였다.



약 800억원의 이적료로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게 된 라힘 스털링. /AFP연합뉴스

8억7000만 파운드의 이적료는 유럽의 5대 리그 중 단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4억 파운드(약 72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8억7000만 파운드 가운데 약 67%인 5억8500만 파운드(약 1조600억원)는 해외 구단에 지급됐다.

이탈리아 세리에A가 4억500만 파운드(약 7300억원)의 이적료를 지급해 프리미어리그의 뒤를 이었다. 이어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2억9000만 파운드·약 5200억원), 프랑스 리그1(2억2000만 파운드·3900억원)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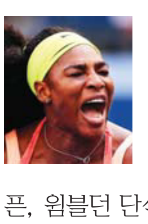
EPL 구단 중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1억6000만 파운드(약 2900억원)의 이적료를 지급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이적시장에서 지급했던 1억5000만 파운드(2700억원)를 넘어섰다.

맨시티는 이번 이적시장에서 가장 높은 이적료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한 케빈 더 브루잉과 라힘 스털링을 볼프스부르크와 리버풀에서 데려오는데 5800만 파운드(약 1000억원)와 4400만 파운드(약 800억원)의 이적료를 각각 지급했다.

/하희철 기자

윌리엄스, 우승시 '캘린더 그랜드슬램'

US오픈테니스



세레나 윌리엄스(1위·미국·사진)가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230만 달러·약 502억원) 여자단식 3라운드에 진출하며 그랜드슬램에 한 걸음 다가갔다.

윌리엄스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3일째 여자 단식 2라운드에서 키키 베르텐스(110위·네덜란드)를 2-0(7-6<5> 6-3)으로 꺾었다.

올 시즌 4대 메이저대회 중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윔블던 단식에서 우승한 윌리엄스가 US오픈까지 석권하면 1988년 슈테피 그라프(독일) 이후 27년 만에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윌리엄스는 3라운드에서 베타니 마텍 샌즈(101위·미국)와 맞붙는다.

남자단식 2라운드에서는 라파엘 나달(8위·스페인)이 디에고 슈바르츠만(74위·아르헨티나)을 접전 끝에 3-0(7-6<5> 6-3 7-5)으로 꺾었다. 나달은 마지막 세트에서 2-4로 뒤졌으나 뒷심을 발휘하며 역전, 경기를 마무리했다. 나달은 3회전에서 파비오 포그니니(32위·이탈리아)와 겨룬다.

다비드 페레르(7위·스페인)는 3회전에서 제러미 샤르디(27위·프랑스)와 대결한다.

/하희철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의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 지지 부정 선거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 "AFC, 부정 선거운동"

"회원국에 플라티니 지지 추천서 보내"

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3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을 위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신문로 축구협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셰이크 살만 AFC 회장이 최근 회원국에 발송한 서류 사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살만 회장이 발송한 서류는 플라티니 회장을 FIFA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추천서 양식으로 담고 있다. AFC 회원국은 플라티니 회장 외에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포함돼 있다.

정 명예회장은 "FIFA 회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는 회원국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대륙연맹이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는 FIFA 법규 제24조1항과 17조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AFC 회장이나 UEFA 회장의 지위를 기반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면 FIFA의 선거규정 위반"이라며 "타 후보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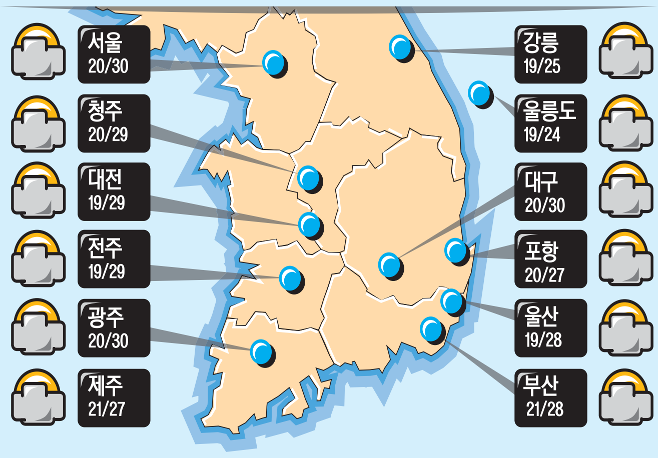
정 명예회장은 지난달 31일 도메니코 스칼라 FIFA 선거관리 위원장과 코넬 보르벨리 윤리위원장에게 살만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보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날씨

9/4 금 일출시각 06:04 일몰시각 18:5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6				3
		6		3		8	1	5
	4				5			
1					7	5		
4								1
		5	9					7
			8				7	
2	1	3		7		9		
5				2	9			

				2	6	8		7
3		2					4	6
							1	
	5					1		
	9		3	1	4		5	
		4					8	
	1							
4	7					6		3
8		6	2	5				

스도쿠 정답

7	5	1	2	6	8	4	9	3
9	2	6	7	3	4	8	1	5
3	4	8	1	9	5	7	2	6
1	3	2	6	4	7	5	8	9
4	7	9	5	8	2	6	3	1
8	6	5	9	1	3	2	4	7
6	9	4	8	5	1	3	7	2
2	1	3	4	7	6	9	5	8
5	8	7	3	2	9	1	6	4

5	4	1	9	2	6	8	3	7
3	8	2	5	7	1	9	4	6
9	6	7	4	3	8	2	1	5
7	5	3	8	9	2	1	6	4
6	9	8	3	1	4	7	5	2
1	2	4	7	6	5	3	8	9
2	1	9	6	4	3	5	7	8
4	7	5	1	8	9	6	2	3
8	3	6	2	5	7	4	9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Been there, done that

A: U know what I just did?
B: What?
A: Posted my resume.
B: Oh really?
A: It's soooo stressful!
B: Been there, done that.
A: I'm so stressed out.
B: What are the odds?
A: Slim. Competition is fierce.
B: But you've got loads of hands-on experience…
A: Maybe too much. I'm tired of working part-time.
B: Hope you make it this time!

다 겪어봤어

A: 나 방금 뭐 했게?
B: 뭐?
A: 이력서 올렸어.
B: 아, 그래?
A: 너~~~무 스트레스야!
B: 나도 다 겪어봤지.
A: 정말 스트레스 받아.
B: 가능성은?
A: 희박해. 경쟁이 치열하거든.
B: 그래도 넌 현장 경험이 엄청 많잖아…
A: 너무 많아서 탈이지. 시간제 근무는 이제 지긋지긋해.
B: 이번엔 꼭 됐음 좋겠다!

* u: you의 인터넷 약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선배와 동업으로 사업을 해도 될까요? 조급하게 시도하면 명예·재산 손해

번뇌 남자

Q 출근시간 메트로 애독자로 선생님의 사주속으로를 늘 구독 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운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다가 용기를 내서 글 올립니다. 다만 저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기업 관련 일을 했습니다. 선배 분이 건물 종합 관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사업을 맡아 달라고 합니다. 선배 하는 일에 투자를 해서 같이해도 될지요? 아니면 선배를 도와 회사 경영만 맡아 해야 할지요? 현재의 직장생활로 만족해야 할지요?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라 어찌해야 할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A 독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면은 오픈된 공간이니 비공개는 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태어난 사주팔자에는 천지의 기운이 순행하는데 이것을 '운(運)'이라고 하며 사람은 하늘의 뜻으로 그 신체가 생긴 것이므로 운이 '명(命)'이 되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사람은 다 천운을 받아서 삽니다. 운에 따라 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천운이 다하면 가난해지고 명도 없어지니 죽는다는 것은 기운이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운은 항상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고 그 운을 알고 그것에 맞춰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아쉽지만 현재 재물 운이 하향 길로 가고 있어 먹구름이 될 수 있고 이런 시기에는 자신이 상대 분들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여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있고 통솔력이 좋으며 사람으로부터 바로 인정을 받지만 쉽게 좌절하는 일이 나타나므로 운이 하강 하면 걷잡을 수가 없이 내리막을 타기도 하여 극과 극을 의미 하므로 신상에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운은 참으로 신비하여 운이 강하고 좋게 가면 권력이건 사업이건 크게 발전되고 대박이 나지만 운이 하강하면 한없이 추락을 면치 못합니다. 운에서 파살(破殺)이 작용하고 있으니 어떠한 일을 조급하게 시도하여 자신의 운과 능력에 무리한 욕심을 내어 사업에 손을 대다가 명예와 재산상에 손해를 보고 가정파탄을 가져 올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십시오.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귀문살(鬼門살: 비정상 상태)이 작용해 직장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 유념해두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4일 (음 7월 22일)

쥐 **48년생** 새로운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다. **60년생**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72년생** 인간관계가 순조롭고 재물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84년생** 명석한 자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소 **49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61년생** 비밀 누설로 인해 고생 합니다. **73년생** 노력을 안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85년생** 운기가 양호한 날입니다.

호랑이 **50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62년생**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더 넓은 시아에서 세상을 바라 보도록 하세요. **86년생** 대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토끼 **51년생** 상상이외의 지출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63년생**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75년생**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세요. **87년생**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용 **52년생**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64년생**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만들 수 있는 날입니다. **76년생**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88년생** 어떤 일이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뱀 **53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65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7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습니다. **89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됩니다.

말 **54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66년생**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78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됩니다. **90년생**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양 **55년생** 좋은 운은 늘 오지 않습니다. **67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흉합니다. **79년생** 괴이한 곳에 가지마세요. **91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는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인정으로 인해 해를 당하리니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68년생** 원대한 소원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80년생** 길가엔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92년생**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닭 **57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9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81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93년생**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됩니다.

개 **58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70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하지 마세요. **82년생** 어려울 때일수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94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방합니다.

돼지 **59년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1년생**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 합니다. **83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95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세요.

사는대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 대륙을 꿈꾼다



유 영 주
희망래(來)일 사무국장

'남북철도, 대륙을 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사)희망래(來)일에서 일 한지 6년이다.

6년 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시는 여러 선배님들이 '섬나라'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 분들의 어릴 적과는 달리 이 북방 대륙을 잊고 사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사단법인 희망래(來)일을 만들었고 나는 창립 때부터 일을 하게 되었다.

희망의 열차, 희망의 내일 등 중의적 표현을 담은 이름에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셨던 모습이 생각난다.

사람들을 모아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을 함께 하자는 것만으로 시작했지만 해마다 여름이면 100여 명씩 청소년 등 참가자들이 열차를 통해 한반도와 맞닿은 드넓은 대륙을 보게 됐다. 대륙학교라는 인문학강좌, 평화콘서트라는 문화공연 등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륙에 대한 꿈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작년부터 해오던 침목 모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올 봄에는 2개월 동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기다리다 목 빠진 역장을 주제로 포먼스를 했다.

돌아보면 지난 6년간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시민단체가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북한 때문에 되겠느냐 등. 대륙을 꿈꾸면 우리 꿈의 크기와 가치가 커진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실현 가능성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 언론사를 만나고, 공기업을 만나고, 대기업에 제안서도 넣어봤지만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대국민 운동이 일어날만한 상황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고 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외적 환경에 흔들리며 수년간 '경제 위기' 라는 말과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구조나 불공정성이 점점 더 심화돼 가는 이 숨막히는 사회에서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기에는 내 자식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세상이다.

영화 '암살'의 결말에 대해 개인적인 복수로 끝나버린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개 개인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힘없는 개인일지라도 우리가 모이면 세상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싶다.

시베리아 열차를 같이 탔던, 강원도에서 선발되어 함께 하게 된 고등학생 한 명이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네요'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휴전선 너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피도 눈물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로 만든 결과이다.

변화란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개인인 나의 무기력함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는대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대륙을 꿈꾸고 있다.

꿈꾸는 사람들만 많아져도 세상은 변하리라!

최근 산고 끝에 만들어진 남북 당국간의 화해 분위기와 여러 움직임이 묵묵히 활동해온 시민단체들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가 개인과 사회의 꿈과 가치를 위해 노력해 온 개인·시민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함께 할 때, 변화는 더 빠르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社說

남북한 포함 4자 정상회담도 좋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3국 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국들이 갈등만 거듭하다가 모처럼 화합의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아 다행이다.

사실 남북한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끊임없이 갈등해 왔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다가 충돌 직전까지 갔고,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이 역사와 영토 등의 문제로 반목을 거듭해 왔다. 역내 국가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기는 커녕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갈등을 심화시켰다,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한 공동번영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런 불쾌한 경험과 기억들을 불식시키고 역내 관계를 갈등에서 협력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3국이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할 경우 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실로 크다. 중국의 연간 국가총생산액이 11조 달러를 넘는 것을 비롯해 일본 4조2000여억 달러, 한국 1조4000여억 달러 등 3개국 합쳐서 17조 달러에 육박한다. 따라서 이들 3개국이 협조할 경우 무엇보다 경제적 공동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이라는 동질감으로 문화적 협력의 여지가 크다.

올해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로서는 한·중·일 간의 협력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장차 주변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모색해야 할 시점



기자 수첩
하 희 철
<생활문화부>

드라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사소한 신 하나라도 더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스태프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숙연함을 넘어 경외감마저 든다.

드라마 제작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에 가깝다. 스태프들은 카메라 바깥에서 배우와 연출이 돋보이도록 구슬땀을 흘린다. 배우들도 1분이 채 되지 않는 장면을 위해 밤을 꼬박 새운다. 이들은 생방송과 같은 일정 때문에 몇 개월씩이나 쪽잠과 불규칙한 식사 등 각종 스트레스에 파묻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한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공통적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한다. 주원은 최근 열린 미디어데이 때 '용팔이'를 촬영하면서 6일 동안 잠을 못 잤다며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박보영은 드라마 제작 현장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만큼 많은 드라마들이 누란지세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범수는 '라스트' 현장 공개 당시 "배우로서 소신껏 말할 수 있다"면서 드라마 제작 환경을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라스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했기 때문에 타 방송사에 비해 월등한 제작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쪽대본도 없고 날치기 촬영도 없어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스트'는 반사전제작으로 8회 분량을 제작한 뒤 방영을 시작했다. 이는 드라마의 높은 질로 이어져 고정 시청층을 갖게 됐다.

사실 지금의 드라마 제작 방식이 통념적으로 굳어진 것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욕심 때문이다. 드라마 내용을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해 생방송처럼 촉박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드라마가 이런 방법으로 득을 보기도 했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 원래의 기획의도를 따라가지 못해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당일 방송 분량을 당일 아침까지 촬영할 정도로 무리한 일정을 따라가게 됐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이제 바뀌었다. 질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외면을 받는다. 기존 방식대로 드라마를 만들어도 시청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2015년의 한국 드라마는 그들끼리만의 경쟁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유입되는 미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와 대결해야 한다. 그렇기에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작 환경을 개선해 스태프들의 처우와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사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주길 기대해본다.

척추 환자의 잠자리 숙면법

생활건강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 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잠을 편안해 잘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질환에 따라 수면 자세를 조금 달리 하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허리를 약간 숙여 모로 누워 자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단 이런 자세는 당장은 편하지만 오래 계속되면 척추가 휘어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세 (X)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세(O)

◆잠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세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한번에 윗몸을 일으키면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사진1). 우리는 잠에서 깼을지 몰라도 허리는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어날 때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허리가 뒤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옆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다(사진2). 먼저,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돌린다. 일단 옆으로 몸을 돌린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윗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척추를 보호하는 자세다.

한쪽 팔과 손으로 몸을 지탱하여 일으켜 세운 후 양쪽 다리는 침대 밖으로 내린다. 잠에서 깨고 난 후 자리에 누운 채로 길게 기지개를 켜서 허리근육을 깨우는 것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도움을 준다. 또한 자고 일어나서는 허리를 양 옆으로 비트는 등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

인사

◇오피니언뉴스 ▲전무이사 조희제
◇문화재청 △4급 승진 ▲안전기준과 기술서기관 김지성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무처 총괄지원팀장 권영섭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장 류인수 ▲불교문화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김경호 ▲시설관리팀장 노동영 ▲재무회계팀장 겸 산학협력단 회계감사팀장 김성규 ▲비서실 전략홍보팀장 임명수
◇새만금개발청 △4급 승진 ▲투자전략국 계획총괄과 김민수



SOLCO.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수소샘
H₂-Dispenser®
추석맞이 가족사랑 이벤트
'백세건강연구소'가 드리는
'대한민국 건강프로젝트'
100세 시대
100일 체험
100분 한정
그 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벤트는 9월 말까지만 진행됩니다.
백년건강 수소수가 답이야
H2
| 전속모델 |
가수 윤수현
작고 강력한 스마트 수소수기
수소수 디스펜서
SHD-100
컬러 와인 / 그레이 중 선택
수소샘
검색
KAA
대한아토피협회
우수 추천 제품
TITANIUM & PLATINUM PATENT
6중 티타늄백금
수소생성장치 특허기술
깨끗한 물과 수소의 만남_내 몸을 웃게 하는 차원이 다른 수소수를 경험하세요!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2O)에서 산소(O2)와 수소(H2)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솔고 수소수 생성기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백금 | 티타늄 | 백금
백금 | 티타늄 | 백금
1 최소 1,000ppb 이상 높은 수소용존 수치
2 수소용존시간이 오래 유지
3 온도변화에도 높은 수소용존량 유지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600-2020
대리점 및 기술이전 문의 1588-0275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14-서울중구-0505호